



인천의 전문화 로펌시대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무법인 로시스’는 서해안 시대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인천의 정통 로펌으로서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시스’는 권위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를 탈피하여 고객에게 헌신적이고 능동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시스’는 법관 및 변호사로써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들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전문로펌의 시대입니다!

개인 변호사가 민.형사를 비롯한 모든 법률업무를 취급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고객 중심의 전문 Law firm



변 호 사	남승희, 민경술, 김미영, 이인철, 최직렬, 염규상, 문성윤	
	지역별 사무소 및 전문상담전화 (무료)	
주사무소(인천)	인천 남구 학익동 251-33 로시스빌딩 8층	032)861-5511
분사무소(서구)	인천 서구 심곡동 280-1 엄지빌딩 5층	032)569-1122
분사무소(김포)	김포시 사우동 248-1 부흥빌딩 4층	031)985-5533
분사무소(서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9-8 로우센터빌딩 202호	02)595-4926
공 증(인천)	인천 남구 학익동 251-33 로시스빌딩 3층	032)861-8080
회생, 파산(인천)	인천 남구 학익동 251-33 로시스빌딩 3층	032)861-9933

대표변호사 남승희
순심고, 연세대 법대, 사법연수원 21기
인천, 서울중앙지법 판사
연세대 보건대학원 의료법 고위자 과정
연세대 특허법무대학원
인하대 경영대학원 한·중 비즈니스 과정
부천 중앙실험 파산 관재인
한국 마프이, 한서상호저축은행 자문 변호사
삼성생명, 교보생명 업무협약
세무사, 변리사
해상·보험 특별연수
근로복지공단 자문변호사

변호사 민경술
송도고 고려대 법대
사법연수원 32기
인천시청 전문 민원상담위원
부천 YMCA 법률상담위원
한국경제 자동차신문 전문가 칼럼니스트
논문 : 미국 형사소송법상 경찰과 시민의
단계적 조우 형태
농지관련법 지상물매수청구권 검토
관습법상 분재청구권 검토

변호사 김미영
썬밸여고 이화여대 법대
사법연수원 32기
인천지방변호사회
남동공단 법률자문
여성문제 전문 변호사
논문 : 어음·수표의 분실에 관한 법률관계 등

변호사 이인철
경기고 연세대 법대
사법연수원 24기
사법연수원 학습총무, 공법학회 수석총무
참여연대 법률봉사
(주)미래2000, 슈테크, 부평민자역사,
동아풍림아파트, 인천일보 법률상담 담당
퍼니원, 웅진군 자월면 발전협의회 자문변호사
저서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법

변호사 최직렬
경신고 연세대 법대
사법연수원 19기
서울(분)사무소 주재 변호사

변호사 염규상
한일고 고려대 경영학과
사법연수원 33기
인천지방변호사회
김포, 강화공단 법률자문
김포(분)사무소 주재 변호사
김포신문, 김포뉴스, 열린신문 칼럼니스트
통진실험 고문변호사

변호사 문성윤
송도고 연세대 법대
사법연수원 31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고양출장소
공익법무관
논문 : 민사상 거래안전보호를 위한 제도 고찰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문제점

Good Morning
굿모닝인천

INCHEON

2005 | 4

2005년은 인천투자의 해, Buy Incheon

인천은 지금 꽃축제 중
비릿한 난장 포구기행
아~ 푸르구나 중앙공원
색·맛·향 허브 즐기기

인천광역시
www.incheon.go.kr

www.ietec.or.kr

행사문의 : 032-770-8860 ~ 1

2005년을 먼저 독자여!
Buy Incheon™

i-ENVITECH 2005
INCHEON ENVIRONMENTAL TECHNOLOGY FAIR 2005

제3회 인천환경기술전

2005. 4. 20(수) ~ 4. 22(금)

인천중소기업제품종합전시장(연수구 동춘역)

부대행사

❖ 제3회 환경정책포럼

2005. 4. 21(목) 14:00

문학월드컵경기장 컨벤션센터 미추홀

❖ 환경신기술·신제품 발표회

〈제1일차〉

한·중·일 기자단 및 자매도시 참관단과의 비즈니스 설명회

2005. 4. 20(수) 15:00~17:00 전시장내 발표장

〈제2일차〉

수질환경분야 발표회(상하수도분야 포함)

2005. 4. 21(목) 14:00~16:00 전시장내 발표장

〈제3일차〉

대기환경 및 기타환경분야 발표회

2005. 4. 22(금) 14:00~16:00 전시장내 발표장

Incheon Environmental
Technology Fair
2005

| 주 최 | 인천광역시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 주 관 |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인천일보사

시민의 힘 하나로! 인천의 힘 세계로!

굿모닝인천

2005.4 (통권 136호)

발행인 인천광역시청 안상수

편집인 공보관 이부현 공보담당 사무관 유승준

편집장 유동현 취재 편집위원 정경애 · 지영일

사진 심영보 · 하장원(시공보관실) · 김성환 · 김정식(자유사진가)



06



42



48

04 4월이야기 | 꽃축제

08 그래 어디든 가보는 거야 | 포구기행

12 이달의 공연 |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외

16 함께 나누는 세상 | 급식조리봉사단

18 현장속으로 | 중앙공원

24 굿인천 굿뉴스 | 깨끗한 바다 출항 '인천 Sea Clean' 호 외

28 군·구 풍향계 | 중구 주차장 마련 무상지원 외

29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식 | '송도국제도시' 로 문패 달다 외

30 의정소식 | '점근권에 초점 맞춘' 조례제정에 집중을 외

31 조명 | 남북교류의 관문 '인천'

32 동서남북 |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34 만화로 보는 인천의 최초·최고, 유일시리즈 | ④ 협률사

36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 우울증

37 포커스 | 교원 수학여행 프로그램 팸투어를 다녀와서

38 앓, 나도 이런 일 있었는데 | 방문과외

39 yummy yummy | 외국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음식점

40 아름다운 도전 | 어울림카페

42 인천에서 즐겁게 잘 사는 법 | 색 · 향 · 맛 '허브'

46 Youthzine | 미국 대통령의 날(The Presidents' Day)

47 인천의 물류이야기 ④ | 인천항을 올바르게 알자

48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 열여섯 번째 사람 | 김명수씨

52 독자마당 | 이달의 주제 '친구'

55 Inf●Box | 인천관광기념품을 공모합니다 외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2072~3) 광고문의 (032-440-2042, 2071)



발행처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 (구월동 1138번지)) 발행일 2005년 4월 1일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0-84900-42-81 인쇄 인천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굿모닝인천〉은 <http://www.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표지설명 _ 인천대공원 벚꽃 길

후두두 후두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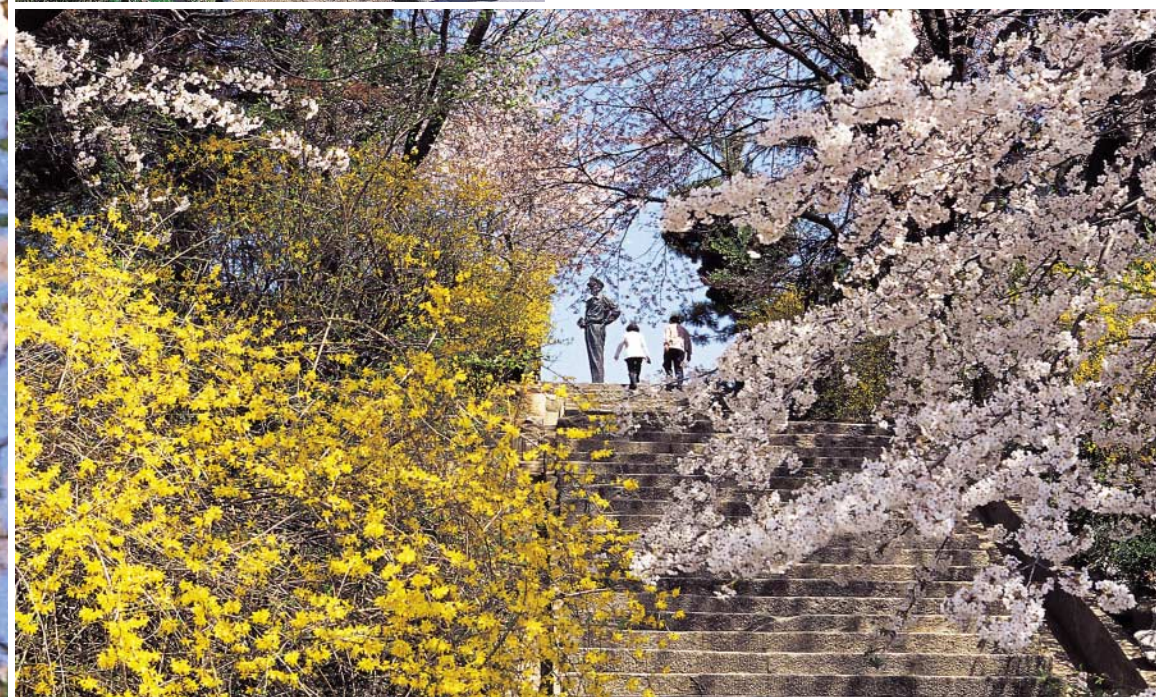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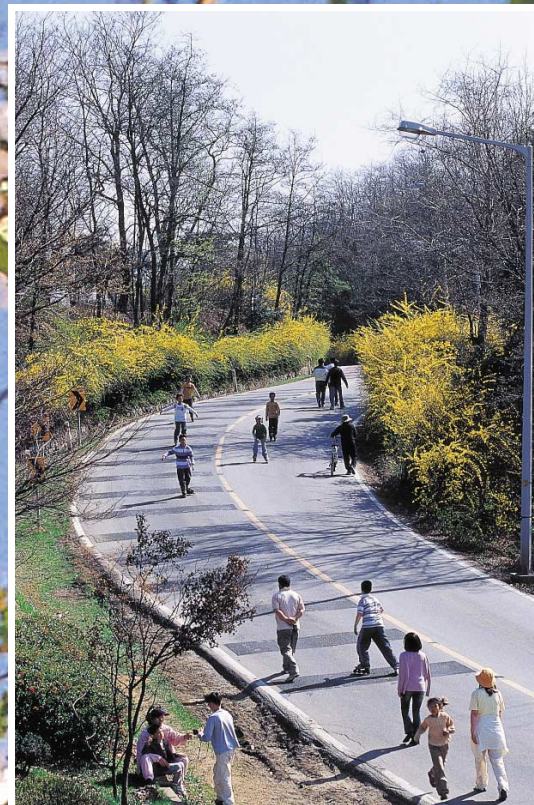
꽃비 내리네~

너무 오래 기다렸나보다. 봄을 알린다는 복수초가 피었다는 얘기에 귀가 번쩍 튼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에 묻어오는 꽃내음은 은근한 설렘으로 4월을 기다리게 한다. 개나리의 향연으로 시작된 꽃 축제가 절정을 이뤄 4월의 인천은 온통 꽃잔치다. 남쪽 끝에서 시작된 꽃내음은 육지를 거쳐 바다 건너 섬으로 퍼져나간다.

봄의 전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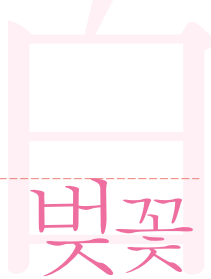
개나리

봄의 전령은 누가 뭐래도 개나리. 울타리 꽃 개나리는 굳이 어디라고 하지 않아도 아파트 담장이나 길 옆 등에 지천으로 피어 천지를 노오랄게 물들인다. 특히 서구청 뒷편에서 가정오거리에 이르는 옛길인 승학고갯길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는 도심의 정원 같은 곳이다. 지난해 까지는 차없는 거리로 조성해 개나리 빛을 감상하며 유유자적 거닐 수 있었지만 올해는 이 길에 차가 다니게 돼 좀 아쉽다. 하지만 개나리 터널을 드라이브 하는 맛도 괜찮다. 도로 중간 중간에는 쉼터와 정자 등이 있어 경치 좋은 곳에 차를 세우고 쉬어가기에 좋다. 자유공원의 옛 비둘기광장에서 중구문화원으로 내려가는 계단에는 계단 좌우로 벚꽃과 개나리가 키 재기를 하듯 피어 있어 흰 빛과 노란 빛이 절묘한 조화를 빚어낸다. 강화에서는 읍내에서 조금 벗어난 송해로에 개나리가 줄지어 피어 눈을 땔 수 없게 한다.





봄의 진수



진해에 군항제가 있다면 인천에서는 인천대공원과 월미산의 벚꽃축제가 이에 필적할 만하다.

인천대공원의 벚꽃은 1.5km에 이르는 산책로에 심어진 수령 25년생의 벚나무 600그루가 장관을 이룬다. 특히 자전거 광장에서 후문까지 이어지는 길은 꼭 벚나무들이 사열을 하는 것 같다. 올해는 4월 9일부터 17일까지가 벚꽃축제 주간이고 10일에는 야외음악당에서 벚꽃축제가 열린다. 여느 해와는 다르게 특색있게 준비된 사자춤 공연이 눈에 띄고 시민 모두가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 시립무용단 공연, 벚꽃콘서트, 인형극 등을 즐길 수 있다(440-6533).

월미산은 반세기 동안 군부대가 자리잡고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됐었다. 이것이 오히려 나무들에는 인간의 손때를 타지않는 절호의 기회였다.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월미산은 때를 기다리거나 한 것처럼 500여 그루의 벚꽃이 등산로를 따라 오르는 사람들에게로 와락 달려든다. 좁은 등산로 양쪽에 마주선 듯 터널을 이룬 벚꽃은 너무 무성해 하늘의 모양조차 달라지게 만든다. 올해 월미산 벚꽃축제는 4월 24일로 예정돼 있다.

산책하듯 벚꽃놀이를 즐기려면 공원에 올라보자. 인천시민들의 오랜 휴식터 자유공원은 그 역사만큼이나 벚나무의 나이도 녹녹치 않다. 한미수교백주년기념탑을 중앙에 두고 왼편과 오른편의 산책로가 모두 벚꽃 천지다. 기념탑을 끼고 산책하노라면 바다와 만났다가 헤어지기를 반복하며 벚꽃 세례를 받게 된다. 올해는 특히 4월 16일 한중문화관 개관을 기념한 벚꽃축제가 열린다.

수봉공원 역시 벚꽃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곳이다. 공원 곳곳에는 한아름이 넘는 굵은 벚나무가 동지를 틀고 있다. 특히 수봉산 정상에 이르는 계단 옆으로 벚나무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어 밤이면 가로등 불빛에 수줍은 자태를 다소곳이 드러낸다.

강화의 벚꽃은 육지보다 일주일정도 늦게 피는 것이 보통이다. 강화에서 벚꽃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은 북산 벚꽃로. 30년 정도 된 벚나무가 고려궁지에서부터 북문에 이르기까지 도로 양편을 꽃 바다로 만든다. 대월초등학교를 비롯해 삼랑고등학교와 강남고등학교 교정에도 20~30년생 벚나무들이 있어 봄맞이 꽃 나들이에 안성맞춤이다.

웅진군 신도 구봉산(해발 178m)은 산 전체에 7천300여 그루의 산벚꽃나무가 흐드러지게 피어 벚꽃 전지가 된다. 육지보다 약 열흘정도 늦게 피기 때문에 미처 물에서 벚꽃놀이를 놓친 이들이 찾기에 제격이다.



봄의 절정



진달래...그리고 야생화

봄 처녀처럼 하늘 하늘 고운 자태의 진달래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곳은 강화 고려산. 해발 436m의 고려산 정상에 오르면 북한의 송악산, 연백, 예성강, 일산신도시, 마니산 참성단, 동·서만도까지 병풍처럼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1987년 고려산에 큰 산불이 나 정상을 기점으로 북쪽이 완전히 전소한 후 새롭게 자라나기 시작한 것이 진달래다. 특히 4월 중순이면 강화 특유의 기후조건 덕분에 진달래가 화려한 색상으로 온 산을 붉게 물들이는 우리나라 최고의 환상적인 진달래 군락이다.

이곳에서는 해마다 진달래축제가 화려하게 열린다. 올해는 4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고려산 일원에 마련된다. 특히 주행사장인 고인돌광장에서 60년대 재래시장을 재연하는 시골장터가 함께 열려 강화의 멋과 맛을 한곳에서 즐길 수 있다. 이밖에도 풍물놀이, 각종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된다(011-328-1400).

인천대공원 호수주차장에서 만의골 구간 1Km에 이르는 길에 핀 진달래는 수줍은 듯 분홍빛을 밖으로 토해내며 하늘하늘한 몸짓으로 오가는 이들의 봄바람을 부채질한다.

이에 뒤질세라 계양산도 진달래로 온 산이 분홍빛이 된다. 계양산 등산로를 따라 핀 진달래 덕분에 산에 오르는 발걸음이 봄기운으로 가득 찬다. 짙은 초록 잎과 함께 앞뒤 붉은빛 분홍빛을 내뿜는 철쭉은 조금은 촌스럽지만 화려하게 화장한 시골 아낙네 같다.

동네 공원쯤으로 생각하고 찾았다가 지천으로 피어있는 철쭉을 만나는 행운은 화도진에서 만끽할 수 있다. 화도진에서는 만개한 철쭉과 함께 해마다 화도진축제가 열리기도 한다.

길가에 흐드러지게 핀 꽃을 감상하는 것도 좋지만 조화롭게 피어있는 여러 식물들을 감상하는 것도 괜찮겠다.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에서는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야생식물전시회가 열린다. 매립지의 자생초, 야생화 등 국내 야생초화 화분을 심고, 수생식물을 수반에 심어서 400여점을 전시한다. 야생화, 잡초 등 야생식물의 이름에 표찰을 붙여놓아 아이들이 식물도감을 들고가 꽃이름을 익히는 것도 좋겠다.

글 _ 정경애 (happyjka@incheon.go.kr) / 사진 _ 김성환 (koin1@incheon.go.kr)



비릿한 난장에서 생명의 싱싱함 얻는다

육지의 끝이자 바다의 시작인 포구. 4월의 포구는 어머니 품처럼 푸근하다. 갯골 따라 밀려오는 바다 바람에 봄이 실려 온다. 쓸쓸하고 고단한 인생이여, 인천의 포구를 순례하며 바다를 향해 기지개를 켜보자. 비릿한 바다 내음과 갈매기의 울음소리에 생명의 싱싱함을 얻게 될 것이다. 포구 근처에는 맛있는 밥집도 숨어있어 겨우내 잃었던 미각도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의 뒷간 ‘똥마당’ ... 북성포구 그곳의 시계는 모두 멈춘 듯 하다. 북성포구에 가면 2,30년 전 인천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인다. 그 포구는 마치 도시의 뒷간처럼 후미진 곳에 자리 잡은 채 바다 쪽으로 조그만 출구를 열어놓고 있다. 북성포구를 아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인천 땅에 땀줄을 묻은 사람일 게다. 게다가 그곳을 ‘똥마당’이라고 부른다면 왕년에 앞바다에서 개해업 좀 쳐본 사람일 것이다. ‘똥마당’이란 이름은 그 옛날 인근 미군부대에서 이곳에 똥을 내다버렸다고 해서 붙여졌다고도 하고 근처 피난민 동네의 노천변소 역할을 했다 해서 붙여졌다고도 한다. 만석고갯도로 밑에서 만석3차 아파트 옆 바다 쪽으로 향하면 대원조선소가 나오는데 그 담장 골목길로 들어가면 믿겨지지 않는 곳에 포구가 자리잡고 있다. 포구로 나서자면 시장통 같은 횃집 골목부터 거쳐야 한다. 너댓 집 마주보고 있는 횃집들은 횃집이라기보다는 선술집 같은 분위기를 풍긴다. 바닷쪽의 횃집들은 일종의 수상(水上)가옥으로 밀물 때는 마루바닥까지 바닷물이 찰랑거린다. 번듯한 집안시설 하나 없지만 북성포구는 30여척 어선들의 어엿한 안식처이다. 배 들어올 시간을 용케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뚝배기 채 내리기도 전에 갑판에 올라가 혈떡거리는 물고기를 즉석에서 흥정해서 산다. 몇 마리의 물고기는 그곳 횃집에서 바로 횃감이 된다. 4월이 되면 북성포구 일대는 쭈쭈미 볶는 냄새가 진동한다. (구)만석고갯고 밑에는 30년 전통의 ‘할머니집’을 비롯해 쭈쭈미 전문점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다. 뗏길을 건너 ‘가연’(773-9012)이라는 음식점을 찾으면 바지락쌈장이라는 별미를 맛볼 수 있다.

쪼그라 든 할머니 젓가슴... 화수부두 지금은 북항 개발 등으로 인한 매립으로 뱃길이 점점 좁아지고 부두마당이 찌부러지고 있는 쇠락한 포구, 화수부두. 그곳이 6, 70년대 우리나라의 3대 어항이었다는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대우종합기계 뒤편에 있는 화수부두는 한때 연평도 조기잡이 배를 비롯해 웅진, 강화, 충청도 앞바다에서 잡은 생선을 가득 실은 만선의 뱃고동이 울려 퍼지던 이름 난 포구였다. 수협공판장, 얼음공장, 어구상점, 식당 등이 즐비했고 부둣가에는 사람과 돈이 넘쳐나던 곳이었다. 지금은 소래포구에 그 명성을 빼앗겼지만 한동안 화수부두는 새우젓향으로도 이름을 날렸다. 새우젓 배들이 입항하면 큰길까지 비릿한 난장이 서곤 했다. 아직도 그곳에 가면 새우젓을 담았던 드럼통들이 녹슨 채 나뒹굴고 있다. 포구로서의 여백이 얼마 남아있지 않지만 아직도 몇 척의 어선들이 이곳을 근거지로 갈매기를 뱃 삼아 물때 맞춰 바다로 나서고 있어 포구로서의 정취는 잃지 않고 있다. 기운 해처럼 황혼길에 접어 든 화수부두 곳곳에는 인천인들의 추억이 비린내 만큼이나 강렬하게 스며 있다. 부두 안쪽에는 ‘서울식당’(772-4538)이라는 횃집이 망부석처럼 화수부두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데 이 집의 복요리는 상호에 걸맞게 서울까지 알려져 있을 만큼 맛이 좋다.



북성포구 수상(水上) 횃집
(왼쪽 큰사진도 북성포구)



화수부두



화수부두 옛 선창가



화수부두

작약도 앞바다로 향한 쪽문… 만석부두 물이 넘친다는 뜻의 ‘무네미’라고 불렸던 만석부두는 이제 예전만큼 물이 넘실거리지 않는다. 한때 충청·전라·경상도 등 삼남지방에서 강화도 수로를 이용해 서울로 올라가던 곡물을 만석이나 쌓아두던 곳이라 해서 ‘만석’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도 하는 이 부두에는 이제 쌀 몇 가마 쌓아 둘 땅패기조차 없다. 공장 담장 사이에 낀 기다란 골목 끝에 뻐끔히 열려 있는 바다가 전부다. 그래도 잔물결 찰랑거리는 부두 끝에 서면 그런대로 시야가 좋다. 무엇보다 작약도가 코앞에 들어온다. 지금은 연안부두에서 떠나는 작약도행 배가 예전에는 이곳에서 오고 갔다. 그만큼 작약도는 가까운 곳에 있다. 작약도는 대개 월미도에서 영종도로 건너갈 때나 바라보게 되는데 만석부두에서 보는 그 작은 섬은 전혀 다른 느낌을 준다. 봄이 되면 이곳은 월척을 꿈꾸는 강태공들로 북적거린다. 이제 만석부두는 어선들의 출입처라기보다는 낚시배 출항지로 유명하다. 만석부두 입구에는 ‘○○유선’ ‘△△낚시’라는 간판이 즐비하다. 날씨 좋은 주말에는 하루에 100여척의 낚시배가 1,000여명의 낚시꾼을 태우고 승봉도나 덕적도로 향한다. 부두 꼬트머리에는 ‘부두수산’ (761-0620)이라는 횡집이 바다를 배경삼아 오롯이 서있다. 100% 자연산만 취급하는 이 집은 횡감이 없는 날은 아예 문을 닫아버려 식도락가들의 애를 태운다.



만석부두



낚시배들의 출항지 만석부두 입구

봄 밥상의 진객(珍客) 밴댕이와 쭈꾸미 그리고 황복

밴댕이는 그물에 걸리면 제 성질을 못이기고 곧 죽어버리는 까닭에 오랫동안 신선도를 유지하기가 힘들었다. 저장기술이 발달한 요즘은 사시사철 회로 먹지만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철은 알을 낳는 시기인 4월에서 6월 사이이다. 강화 선수리포구(후포항)가 밴댕이로 유명한 곳인데 현재 공사가 한창이라 약간 불편하다. 연안부두나 구월동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 근처에도 밴댕이집이 밀집돼 있다. 밴댕이는 피부미용에 좋으며 불포화지방산이 많아 고혈압환자나 허약 체질에 효험이 있다고 한다.

‘봄쭈꾸미 가을낙지’라는 말이 있듯이 쭈꾸미는 산란기를 앞둔 3월 말에서 4월 중순까지가 가장 맛있다. 이 시기엔 쭈꾸미의 머리 속에 밥알 같은 알이 가득 들어 있어 씹히는 맛이 그만이다. 낙지보다 작지만 연하고 쫄깃쫄깃해 씹는 맛이 일품인 쭈꾸미는 지방이 1%밖에 안되고 다량의 철분을 함유하고 있어 빈혈이 있는 사람에게 특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먹물에 들어있는 타우린 성분은 남성 스타미너 증진에도 뛰어난 효과를 낸다. 인천 전역에서 먹을 수 있지만 북성포구로 들어오는 싱싱한 쭈꾸미를 요리하는 (구)만석고가 밑의 쭈꾸미 전문점에서 제 맛을 낸다.

황복은 복어 중에서 으뜸으로 친다. 소동파를 위시한 옛 문인들은 황복 맛을 가히 목숨과 바꿀만한 가치가 있다고 극찬했다. 몸길이 45cm 내외의 황복을 옆에서 보면 배불뚝이 옷을 입고 노랑고 까만 점으로 화장한 서커스 광대가 연상된다. 황복이라는 이름은 몸이 노란데서 붙여진 것이다. 복어들은 대개 바다에서 살지만 황복은 바다에서 살찌우고 살다가 4~5월 봄철 산란기가 되면 연안을 지나 강의 하구로 접어들다. 이때 강화도 어부들에게 잡혀 미식가들의 밥상에 오르는 것이다. 어부들은 황복을 ‘황금물고기’로 여길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데 그도 그럴 것이 1kg에 10만 원 이상을 호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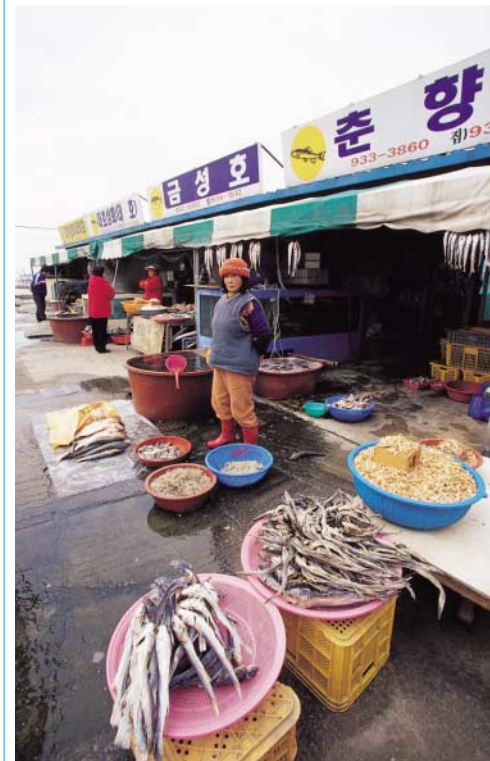


침묵처럼 속울음 우는 바다… 창후리포구 강화도 북쪽 끝은 갈매기 울음조차 조용하다. 섬 사이를 흐르는 물길이 지친 나그네의 여정을 가로 막는다.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포구에서는 유배의 섬 교동도를 오고가는 카페리의 스크루 소리만이 정적을 깬다. 포구 위에 있는 무태돈대 석축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니 아련하게 해조음이 들린다. 물이 들어오는 것이다. 소리없이 스며드는 서해의 해조음에는 바다의 침묵이 실려 온다. 북쪽 땅 임진강에서 내려온 물이 그 침묵을 더한다. 진달래가 피면 그 포구는 물고기 한 어종 때문에 시끄러워지기 시작한다. ‘황복’을 맛보기 위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탓이다. 황복 덕분에 창후리포구에는 서해횟집(933-7514) 등 크고 작은 횡집이 들어서며 ‘황복화마을’이라는 별칭까지 얻게 되었다. 황복회를 먹은 후 포구 앞에 있는 ‘마라 쓴물 갈슘 온천탕’에 몸을 담그면 ‘황제가 무에 부러울쏘냐’라는 말이 절로 나올 것이다.



무태돈대에서 바라 본 창후리포구

창후리포구 어판장



용기종기 정겨운 어판장…황산도포구 황산도는 마치 강화도에 젖물린 아기 같은 섬이다. 초지대교 왼편, 염하 바다에 접한 황산도 포구는 영화세트 같이 생긴 작은 포구이다. 탁자 두서너개가 놓여있는 조그만 횡집들이 용기종기 모여 있는 어판장은 동네 가게처럼 친근감을 물씬 풍긴다. 어판장 가운데로 난 좁은 길에는 갯가지 횡감과 건어물들이 좌판에 진열돼 있어 포구의 정감을 한층 더 느끼게 한다.



글 _ 유동현 (편집위원 · batubatu@incheon.go.kr)
사진 _ 김성환 (자유사진가 · koin1@incheon.go.kr)



창작뮤지컬 박달나무 정원



창작뮤지컬 〈박달나무 정원〉은 단군 신화를 배경으로 한 창작 뮤지컬로 서사적인 장중함으로 흐르기 쉬운 신화의 한계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쉽고 경쾌한 구도로 탈바꿈시킨 작품이다. 옛날이야기처럼 서정적이면서도 간결한 흐름으로 관객들이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보여주기에 치중한 쇼(SHOW) 형태의 뮤지컬과는 달리 역사적 사실 위에 문학적 허구와 예술적 창조를 가미하여 현대적 뮤지컬로 재구성한 드라마이다. 타악기 위주의 역동적인 음악과 춤, 절제된 대사에 움직임 위주의 표현, 한국적인 무대 디자인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노릴 수 있는 창작뮤지컬이다.

일시·장소 _ 4월 5일(화) ~ 6일(수) 오후 4시, 7시 30분 계양문화회관 / 5월 11일(수) ~ 13일(금) 오후 7시 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_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문의 _ 극단 십년후 (514-2150 /www.samsin.info)

넌 버벌 마샬 아츠 퍼포먼스 점프

〈점프〉는 신체의 아름다운 극대화된 아크로바틱과 신나는 음악, 코믹한 드라마를 무술이라는 스펙타클한 소재에 접목시킨 마샬 아츠 퍼포먼스의 종합판이다. 태권도, 택견, 쿵푸를 비롯한 동양무술에 아찔한 아크로바트 묘기의 현란함, 기존의 Non-Verbal 퍼포먼스와 달리 도둑을 쫓아내는 가족애기를 해학적으로 그려내며 신명나는 음악과 함께 펼쳐진다. 〈점프〉는 기존의 어떠한 공연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창적인 형식으로 국내 관객은 물론, 해외의 유명 공연 프로모터를 사로잡고 있다.



일시 _ 4월 12일(화) ~ 5월 14일(토) 금 오후 8시, 토 오후 7시 화~금 (1일 1회 오전 특별공연)
장소 _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1층) 25,000원, S석(2층) 20,000원
문의 _ 아트노우 (02-3272-5335)

신개념 무술 퍼포먼스

20% 할인권

본 할인권을 오려서
매표소에
내시기 바랍니다.

가온누리 사랑을 찾아서

연극 〈사랑을 찾아서〉는 6·25 전쟁의 포연 속에서 하룻밤의 인연이 평생의 소망이 된 사랑 이야기이다. 과거의 사랑과 현재의 사랑이 복합적인 중층구조로 맞물리며 소극장 무대만의 독특한 열기와 생생한 현장감 속에 리드미컬하게 전개되는 재미있는 연극이다.



일시 _ 4월 1일(금)~ 5월 1일(일) 금 오후 7시 30분 / 토 오후 4시 30분, 7시 30분 / 일 오후 4시 30분
장소 _ 소극장 가온누리
티켓 _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단체 5,000원)
문의 _ 765-9756

극단 MADI

그 해엔 아무 일도 없었다

과거와 오늘, 뒤엎겨 흐르는 시간 속 오로지 앞만 보고 달리는 현재의 우리들에게 몇 가지 구태의연한 질문 세 가지, 사랑이란? 그리고 소위 혁명이란? 지금 나는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극단 MADI의 〈그해엔 아무 일도 없었다〉는 이상과 현실 속에서의 이중적 괴리감, 도덕적 가치, 좌충우돌 흔들리는 절망감, 허무의식, 자기 파멸의 충동에 사로잡혀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희망을 품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연극이다.

일시 _ 4월 8일(금) ~ 24일(일) 평일, 토요일 저녁 7시 일요일 오후 4시
장소 _ 학산소극장 **티켓** _ 10,000원
문의 _ 극단 MADI (814-4572)

가족뮤지컬

일곱마리 아기염소와 늑대

〈일곱마리 아기염소와 늑대〉는 인형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뮤지컬 형식의 신나는 인형극으로 어린이에게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교훈과 재미를 주는 공연이다. 책으로 세트를 만들어 마치 동화책을 보는 듯 한 무대가 이채롭다.



일시 _ 4월 12일(화) 오후 3시·4시 20분 4월 13일(수) 오전 10시 40분, 오후 3시·4시 20분
장소 _ 인천종합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일반 10,000원 / 할인 7,000원 / 회원 5,000원 단체 4,000원
문의 _ 꼬마세상(572-4281)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브로드웨이 42번가는 지난 80년 뉴욕에서 초연된 후 브로드웨이에서만 3,486회의 장기 공연을 기록하며 3대 뮤지컬로 손꼽히는 작품이다. 2005년 업그레이드된 이번 공연은 소적인 볼거리를 대폭 강화한 뉴버전으로 반짝이는 스펅글 의상, 빠른 무대 전환, 다이내믹한 탭댄스 등으로 화려한 볼거리가 많은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대표작이다. 40여명의 출연진이 동시에 벌이는 압권의 탭댄스 그리고 평면무대를 입체적으로 돋보이게 한 무대 장치와 가짜 동전위에서 춤추는 코인댄스 등은 관객들의 흥분과 시선을 사로잡기 충분하다.

일시 _ 4월 8일(금) 오후 7시 30분 / 4월 9일(토) 오후 4시·7시 30분 / 4월 10일(일) 오후 3시·6시 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 70,000원 / S석 60,000원 / A석 50,000원 B석 40,000원
문의 _ 하늘기획(322-2121)

퓨전콘서트 공감21



한국의 타악팀 전통타악연구소예술단과 안데스 민속음악그룹 '위냐이'가 만나 예술적 조화를 이룬 재미와 신명이 살아있는 색다른 소리여행이다. 케췌아어 '위냐이'란 '영원'이란 뜻으로, 2000년 2월 결성돼 리마 국립도서관 '문화예술공연', 국립대학공연원형극장 '팝콘서트' 등을 공연했다.

일시 _ 4월 8일(금) 오후 6시
장소 _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대공연장)
티켓 _ 무료(좌석은 선착순 접수) **문의** _ 760-3455

스크린 위의 뮤지컬

다시 보는 추억의 뮤지컬영화

부평문화사랑방은 『스크린 위의 뮤지컬』을 매주 화요일에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1950년대부터 현대까지의 뮤지컬 영화를 중심으로 옛 향수와 함께 새로운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4월 한 달 동안은 1950년부터 60년대까지의 뮤지컬영화 '사랑은 비를 타고' (12일)를 시작으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19일), '셀부르의 우산' (26일)까지 뮤지컬 영화의 부흥을 알렸던 작품들을 스크린 위에서 만날 수 있다.

일시 _ 4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_ 부평문화사랑방(부평구 갈산2동사무소 3층)
문의 _ 505-5995

이달의 展

조지 로스 사진전

1904, 호주가 본 한반도



호주의 사진가 조지 로스는 두 눈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두개의 렌즈로 제작한 입체 카메라를 개발하여 소위 입체사진(Stereograph)을 제작한 사진작가이다. 그는 1904년 한국을 방문해 일본과 서양세력에 의해 변화되어 가는 구한말의 모습을 담아왔다.

일시 _ 4월 19일(화) ~ 5월 15일(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장소 _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전시실
관람료 _ 무료 **문의** _ 760-3455

etc.

일러스트 원화전 3월29일~4월11일 신세계갤러리	제15회 인천서예술연구회전 15일~21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문화상수상 작가그림전 1일~7일 갤러리 진	우양재 서예전 15일~21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미술인 한마당전 1일~7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오명철 사진전 15일~21일 갤러리 진
제33회 한국여류화가회전 2일~13일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전시실	4인 사색(四色)전 18일~22일 부평구청전시관
한국여류서예가협회 회원전 8일~14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문화재단 창단 전시 22일~28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대·중전시실
차기울 10회 개인전 8일~14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단암서예전 22일~28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제4회 서미화전 8일~14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규방가사-오늘 22일~28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국제사진교류전 8일~14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허기진 초대전 22일~28일 갤러리 진
박영동 초대전 8일~14일 갤러리 진	한·중 수채화 교류전 27일~5월1일 연수갤러리(연수구의회1층)
제3회 인천여성사진가회 11일~15일 부평구청전시관	미술협회전 29일~30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대·중전시실
세라믹 오브제전 12일~28일 신세계갤러리	하늘 그림전 29일~30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김용복 개인전 15일~21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인주옥회원 사진전 29일~5월5일 갤러리 진
인천 문화예술 60년전 15일~21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개미처럼 바지런한 ‘앞치마 사랑’

만수동 주공아파트 7, 8 단지 상가. 지하에 인천 YMCA 만수종합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이 자리잡고 있다.

작업장 옆에는 17개의 테이블이 놓여있는 식당이 마련돼 있다.



09:00
3월 14일 월요일 아침, **공동작업장으로 한 두 사람 모여들기 시작한다.** 아직 점심시간도 아닌데 식당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 만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공근로를 하는 이들이다. 앞치마를 두르고 야채를 다듬고 파를 썰고... 손놀림이 분주하다. 복지관에서 매일 어르신들께 점심 무료급식을 하고 있어 어르신들께 드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09:30
입구에서 웅성웅성, 떠들썩한 소리가 들리더니 한 무리의 아줌마 부대가 들어온다. 열핏보기에 열댓명 돼 보이는 **아줌마들은 자기집인냥 성큼성큼 조리실로** 들어오더니 신발을 벗어 장화로 갈아 신고 앞치마를 착용하니 몸에 두른다. 누구의 지시도 없이 각자 알아서 역할을 분담한다. 칼을 잡는 사람, 야채를 만지는 사람, 쌀을 씻는 사람... 이렇게 일을 시작하는 품이 이미 한 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 하다.

그런데 칼질을 하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다. 도마 위에서 칼이 춤추듯 날아다니고 악기를 연주하듯 리드미컬한 소리가 만들어진다. 지금 온 아줌마들이 모두 정식 조리사자격증을 갖춘 급식조리봉사단(대표·김은수)인 때문이다.

급식조리봉사단은 우리시 여성복지관에서 급식조리 교육을 받고 조리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93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이들은 매월 둘째 월요일과 셋째 화요일에 이곳에서 10년이 넘도록 조리봉사를 하고 있다. 주초에 봉사를 집중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모두들 주말이면 출장요리사로, 출장뷔페사업으로 바쁜 탓이다. 그러니 일주일에 한 두차례 시간을 비우기에도 빠듯한 이들이다.

하지만 이들의 봉사는 비단 이곳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해림원, 영락원 등의 시설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하면 두말없이 달려가거나 와 기용이면 김장봉사, 시립화장장인 승화원에서 안내봉사, 미용봉사, 아름다운가게 자원봉사, 목욕봉사 등 회원들 각자가 갖고 있는 능력과 노동력을 이곳 저곳에서 아낌없이 쏟아 붓고 있다.

10:30
오늘의 메뉴는 쇠고기무국을 비롯해 불고기, 버섯볶음 그리고 샐러드. 만드는 이들의 손길이 더욱 분주해진다.

식탁에는 이미 한 두분 씩 모여들기 시작한 어르신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계신다. 아직 추위가 남아 있는 때라 마땅히 갈 곳도 없고, 아침을 거르기도 한 어르신들은 조금이라도 일찍 식사를 대접받기 위해 서둘러 이곳으로 모이신다.

11:15
세 명의 회원이 ‘영차’ 힘을 써서 밥과 국 그리고 반찬들을 큰 용기에 담아 옮긴다. 근처에 있는 **장애인 쉼터로 ‘배달’**을 나가는 것. 거동이 불편한 이들에게 식사를 배달하고 배식을 한 후 그릇을 수거해 오는 것도 그들의 역할이다.

11:20
드디어 배식이 시작됐다. 국을 뜨고 밥을 푸는 손길이 무척이나 재빠르다.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이 앉아계신 식탁에 다소곳이 식판을 놓아드리며 ‘맛있게 드세요’라는 인사를 잊지 않는다.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봉사자들 덕분에 네분씩 앉은 17개의 테이블에 5분 만에 배식이 끝난다.

밥이 많으니 좀 덜어 달라, 국 좀 더 달라, 반찬이 좀 모자란다... 여기 저기서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한 분 한 분의 요구에 미소를 잃지 않고 거의 뛰 듯이 분주히 움직이는 이들의 모습이 마치 개미떼 같다.

11:30
어느새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분이 계신다. 깨끗이 비워진 식판과 수저를 가져오기 무섭게 또 한 팀은 설거지를 시작한다. **왈그락 달그락 다시 조리실 안에 소음이 꽃처럼 피어난다.**

11:45
식당 안에 빈자리가 많아지고 정리가 돼간다. 배식을 마치고 동시에 시작한 설거지도 얼추 끝이 나고 있다. 뒤늦게 식당으로 들어오신 어르신들에게도 소홀함이 없다. 자리를 안내하고 여전히 **따뜻한 밥과 반찬**을 가져다 드린다.

12:00
오늘의 일정도 대충 마무리되는 듯싶다. 이젠 봉사자들도 허기를 달랠 시간. 삼삼오오 모여 앉은 그녀들의 입이 즐겁기만 하다. **이렇게 힘이 남아 있을 때 누군가를 위해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는 그이들이다.**

봉사를 하면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들이기에 아줌마들의 ‘앞치마 사랑 나누기’가 더 값져 보인다고 하다.



아~ 시원하구나, 푸르구나

올 여름, 우리시가 한층 시원하고 푸르러진다. 나무그늘 길을 한가로이 산책하고 운동으로 몸을 다지는 사람들을 도시 한복판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하늘의 구름을 간질인다. 짙은 도시생활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중앙공원이 우리곁으로 바짝 다가왔다. 행복한 이유이다.



남동구 간석1동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며 녹지축을 형성하고 있는 중앙공원. 무허가 판자촌과 공장 등이 빼곡하게 들어차 삭막한 도시풍경을 일상적으로 보여주던 공간이었다. 모두 9개 지구로 나뉘어 있는 중앙공원은 어린이 놀이터, 교통교육, 문화예술 등 각 블록마다 독특한 테마로 꾸며져 있다. 체육시설, X-게임장, 조각물, 공연장, 산책로, 광장, 분수 등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아기자기하게 늘어놓았다.

경인전철 동암역과 인접한 중앙공원 1지구에는 '희망의 숲'이 조성되어 있다. 총 1만2천평 규모로 희망동산, 시민 기념식수 동산, 협회·단체 기념식수 동산, 웰슬리 동산, 산책로, 광장 등 조경사업지구로 이뤄져 있다. 제2지구는 수림대와 수변공간, 숲속의 운동공간으로 조성돼 있다. 제3지구의 경우는 수림대와 산책로 위주로 되어 있으며 제4지구는 중앙 잔디광장, 분수광장과 산책로를 만들고 인근 주민을 위한 운동과 휴식공간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변에 중앙도서관과 인천시교육청, 인천시청 등 관공서가 위치해 있다. 씨타은행과 CGV, 건설회관 등 고층빌딩 사이에 자리잡은 제5지구는 X-게임장, 구석구석 설치해 놓은 운동시설이 눈에 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념해 만들어진 곳이 종합문화예술회관 뒤편 6지구이다. 지구 중앙부에는 당시를 기념하는 조형물이 들어서 있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마당 겹쳐서 제7지구가 있다. 벽천분수대와 야외공연장, 장미정원, 휴식공간 등 문화예술의 연장공간으로 함께 활용된다. 절기에 따라 각종 전시회, 야외공연 등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한다. 공원 주변으로 롯데백화점, 인천지방경찰청, 인천불교회관, 교보문고 등이 있다. 인천종합터미널과 남구 관교동 아파트 단지 사이에 들어선 8지구에는 어린이교통공원이 있어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교육장으로 개방되고 있다. 인천지하철 터미널역과 연계되어 있으며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인천종합터미널 등이 있다. 문학경기장 쪽 제9지구는 월드컵 대회에 맞춰 만들어졌고 그 기능도 월드컵 문화공간으로 잡았다. 월드컵광장, 야외공연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안개분수, 농구대 등을 갖추고 있다. 도로를 가득 메운 차량과 매캐한 배기가스에 답답해진 가슴이 공원으로 큰 위로를 받는다.

녹색물결 출렁이는 도심 '오아시스'



중앙공원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도심 한복판 2.5Km 구간(남구 관교동~남동구 간석1동)을 남북으로 연결했다는 점이다. 1988년 공사를 시작해 공원 완공까지 17년이 걸렸다. 공원 주변에 인천시청, 교육청, 인천지방경찰청 등 주요 기관과 씨타은행인천본점, 뉴코아아울렛, 롯데·신세계 백화점 등 금융, 상업 시설과 인천종합터미널이 있다는 점도 특이하다. 그야말로 도심 한복판 요지에 놓여있어 공원을 이용하면서 다른 활동을 하기에 편리하고 반대로 주변을 찾았다가 공원을 이용할 수도 있다. 아울러 공원을 따라 인천지하철 1호선이 지나기 때문에 접근성도 매우 좋다.

지금은 각 지구가 간선도로로 인해 단절되어 있지만 각 도로 위로 색다른 다리를 놓아 하나로 연결할 계획이다. 이 다리는 별도의 녹지공간을 포함, 최대 20m 너비로 에코브릿지 형태가 될 것이다. 아울러 인근 지하철의 지하수를 이용한 실개천 조성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공원 이용자의 안전은 물론 공원의 기능이 극대화될 것이다.

누가 이곳이 무허가 판자촌과 공장 등이 난립해 있던 낙후지역이었다고 기억할 수 있을까. 17년이란 시간과 1천356억원의 재원이 35만7천여㎡(10만7천993평)를 녹지로 바꾸는데 필요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우리의 휴식공간이자, 도시의 허파인 중앙공원이 소중하게 지켜지기 위해선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꼭 필요하다.



굿인천 굿뉴스

깨끗한 바다 출항 ‘인천 Sea Clean호’



인천앞바다 수질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인천앞바다 부유침적 쓰레기를 수거하고 해양환경 조사기능을 담당 할 ‘인 천 Sea Clean호’ 취항식이 지난 3월 15일 인천항 관공선부두(제2잔교)에서 개최됐다. 취항식에는 안상수 시장, 박승숙 시의회의장을 비롯해 환경단체, 선박건조업체 등에서 400여명이 참석했으며 탑재장비 성능시연, 선상참관 및 시승이 있었다. 인천앞바다에는 연간 19만㎡에 달하는 쓰레기 등 각종 해양오염인자가 한강 등을 통해 유입되고 있다.

문의 _ 시 수질보전과 440-3644

저소득 모·부자가정 사회적 안전망 구축
최근 우리시가 2005년도 모·부자복지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12개 분야에 총46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2005년도 모·부자복지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먼저 이들 가정의 자녀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양육비 및 학습비를 인상하여 지원한다. 특히 우리시는 모자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2004년 48세대에 이어, 2005년 100세대에 취업·기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기간 동안 생활비와 재료비, 수료 시 자립지원금 지급과 함께 취업, 창업을 알선한다. 아울러 각 10개 군·구에 14개 의료기관을 지정, 모·부자가정 세대주가 의료비 부담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질병치료비를 지원한다. 한편 우리시는 부자가정의 자립자활을 돕고자 올해 부자보호시설을 전국 최초로 건립할 계획이며, 현재 3개소의 모·부자복지시설을 2007년까지 6개소로 확충한다.

문의 _ 시 가정청소년과 440-3943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박차

우리시는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업무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관 위주의 내부지향적이던 행정문화가 점차 고객(시민) 지향적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시민불편 요소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민원 다발업무에 대해 ‘혁신안 창출팀’을 구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업무절차 간소화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며 올 말까지 프로세스 개선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의 _ 시 혁신보편담당관실 440-3702

싱가폴 합정 RSS Endurance 지휘부 방인



인천항에 입항한 싱가포르 합정 RSS Endurance (LST207) 지휘부가 지난 3월 14일 안상수 시장을 예방했다. Teow Hiang CHNG 해군연안사령관, David LAU 장교양성 부교장, Bian TAN RSS Endurance(LST207)함장, 사관생도 대표 등 일행 8명은 이날 안상수 시장을 방문하고 아시아권 물류중심지로서 두 도시간의 역할과 발전방향 등에 관해 환담했다.

문의 _ 시 총무과 440-2412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우리시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에 따라 가정문제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508-0101)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건강가정상담, 건강가정교육, 건강가정문화사업 등을 제공하며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과 가정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

문의 _ 시 가정청소년과 440-3941~3

일자리 만들고 근로의욕 높이고

우리시는 공공 일자리를 현재 3천개에서 최대 4천90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앞으로 시행할 공적노인요양보호제도를 대비해 상설 간병교육장을 마련, 저소득층 500명을 간병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1천명을 민간기업 인턴사원으로 취업시킬 예정이다. 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을 통해 오는 11월까지 재가 장애인 189명에게 일자리를 주고 도시 인근 500평 규모 농지를 임대, 20여 명이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만 60세 이상 노인 1천112명을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에 참여시켜 하루 4시간씩 뒷골목 청소와 명예단속증을 교부할 방침이다.

문의 _ 시 사회복지봉사과 440-2651

공단도 이젠 ‘녹색지대’

우리시가 서부산업단지내 환경정비와 녹지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오염의 대명사이자 회색공간 공단이 청정 ‘녹색지대’로 꾸며지는 것이다. 수목식재를 위해 사

업장에선 개별적으로 나무를 심고, 부지가 부족할 경우 대형화분을 이용키로 했다. 시설녹지 및 가로수의 경우 시·구가 수목 및 식재 지원을 담당키로 했다. 이밖에 향후 담당허물기사업으로 서부산업단지관리본부 등 시범설치를 검토키로 했다.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환경순찰 등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_ 시 공단환경관리과 440-3092

‘짜퉁’ 꼼작마라!

우리시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업무(일명 짜퉁) 단속 지침을 마련, 강력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와 군·구의 합동 단속활동을 월 2회 이상 실시하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반입되는 유사상품에 대해서는 인천국제공항경찰대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우리시는 시 경제정책과(440-2822)와 시 소비생활센터(442-9872) 및 각 군·구 경제과에 상설 위조상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문의 _ 시 경제정책과 440-2822

인 천 사 랑 캠페 인

GM대우차 사랑이 인천사랑입니다!



부평 지역은 물론 우리시 전체의 경제 맥박을 뛰게 했던 대우자동차가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눈부신 변신의 순간에 서 있다. 10대 성장동력산업의 하나로 자동차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발 맞춰 우리시는 자동차산업을 지역혁신발전 전략과제로 선정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자동차산업 네트워크 구축, 자동차부품기술센터 건립, 자동차테마파크 조성 등 미래형의 자동차부품산업 혁신클러스터를 구축 중에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GM대우자동차와 총 투자액 1,160여억원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하여 자동차주행시험장(CTT) 및 연구개발(R&D)센터를 청라경제자유구역에 조성키로 했다.

지난 1997년 IMF전후 인천의 자동차산업 관련 종사자수는 제조업의 14%, 생산액 18.2%, 지역내 총생산 14.1%로 인천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2000년 대우자동차 최종 부도처리후 종사자수는 7.7%, 생산액은 7.3%, 지역내 총생산은 2.6%로 급격히 감소하여 인천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다행히 2000년 5월 인천지역 각계인사 99명으로

구성된 『인천지역자동차산업 살리기 범시민협의회』의 발족과 함께 범시민적인 ‘대우자동차 살리기 운동’이 들불처럼 일었다. 이후 2002년 10월 GM과의 매각계약 체결 및 대우인천자동차 출품과 함께 전 시민의 격려와 지원으로 현재 GM대우자동차가 인천에서 30%대 시장 점유율을 회복했다. 또한 과거 대우차 부도의 냉혹한 현실에서 거리로 내몰렸던 정리해고 근로자 1,750명중 945명이 GM대우자동차에 재고용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동안 GM대우자동차는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전년도에는 2003년 대비 76%의 경이적인 수출증가 실적을 이루었으며, 특히 부평공장의 칼로스 수출실적이 20만여 대로 국내 완성차 업체중 단일차종으로는 해외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종으로 호평을 받았다. 내수부문에 서도 차츰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기는 하지만 인천지역만 볼 때는 오히려 시장점유율이 추축하는 추세로 다시 한번 우리 인천시민들의 GM대우차에 대한 격려와 사랑이 필요할 때이다. 이를 통해 대우인천자동차 부평공장의 GM대우차 인수를 앞당기고, 신규 일자리 창출과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침체 회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체육상 시상 및 체육장학생 장학증서 수여



제23회 인천시체육상 시상식 및 2005학년도 체육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이 지난 3월 2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체육상 수여식에서는 공로부문 18명, 지도부문 18명, 선수부문 5명, 단체부문 7팀, 특별공로패 18명 등 5개부문 66명(팀)이 영예를 안았으며 중등부 26명, 고등부 25명, 대학부 19명 등 70명에게 장학증서가 수여됐다.

문의 _ 시 체육진흥과 440-4084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우리시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2005년 청소년 보호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시·군·구 공무원, 교육청, 경찰청 및 시민감시원 등 15개반 6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주기적인 민·관 합동단속과 계도를 실시

하기로 했다.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35개소,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4개소 등에 있는 4만892개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고용 알선, 출입 허용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11개 유해환경 감시단과 함께 순찰·감시, 청소년 지킴이, 유해매체 감시 활동과 함께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문의 _ 시 가정청소년과 440-3965

가정문제는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에게

최근 지속되는 경제불황으로 급증하는 가정해체가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효과적인 개입과 지원을 위한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을 지난 3월부터 일선기관에 배치, 시범 운영하고 있

다. 오는 8월까지 시범 운영후 전 일선기관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총 80여명의 상담원들은 저소득주민들을 대상으로 1차 상담과 복지 차원의 지원은 물론 법률적 지원까지 개별 상황에 맞는 상담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의 _ 시 여성정책과 440-2714

야생동물을 보호해 주세요



앞으로 야생동물을 아무생각 없이 포획하거나 먹었다가는 큰코를 다칠 수 있다. 야생동물 보호법이 지난 2월 10일부터 시행됨으

로써 뱀, 개구리 등 양서, 파충류를 불법으로 포획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다. 또한 야생동식물보호법은 '먹는자 처벌제도'를 도입하여 밀렵(불법포획 및 밀수)된 것을 알고서 야생동물을 먹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도 처벌한다.

문의 _ 시 환경보전과 440-3532

청소년 지킴이 활동 다양하게 펼쳐



우리시가 2003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청소년지킴이(youth patrol)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시는 교육청, (재)

인천청소년재단 등과 협력해 학교별로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술·담배 판매업소 정화, 흡연예방, 학교폭력 추방, 인터넷 유해사이트 모니터링활동 등의 추진과제를 선정토록 했다. (재)인천청소년재단에서는 수련활동 및 일일 체험 활동, 흡연예방 캠페인, 활동발표회 등을 개최해 청소년 지킴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_ 시 가정청소년과 440-3967

수학여행 코스는 인천이 최고



우리시는 전국의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 지난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초·중·고교 수학여행 담당교사 팸투어를 실시했

다. 팸투어 코스로 송도정보화신도시, 강화도, 한류 열풍을 이어갈 시도의 『슬픈연가』 및 『폴하우스』세트장, 영종도의 과학상설전시관 및 LNG가스과학관 등을 방문했다. 우리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초·중·고교 수학여행 담당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하였으며, 전국의 18개교 3,274명의 학생들이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으로 인천을 다녀가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가을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전국 수학여행 담당교사 2차 팸투어는 7~8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 _ 시 관광진흥과 440-4055

인천의 꿈과 미래에 투자하세요



안상수 시장은 지난 2월 25일 인천하얏트호텔에서 제3차 APEC STAR(Secure Trade in APEC Region)회의에 참가중인 200여명

의 회원국 대표단 및 국내 관계인사를 초청,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홍보를 겸한 만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안 시장은 "현재 최첨단 시설을 갖춘 인천국제공항과 개항 100년이 넘는 인천항을 함께 보유한 인천시는 동북아 교역 및 물류의 중심기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만찬행사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은 시정 홍보 및 경제자유구역 투자설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문의 _ 시 국제협력관실 440-2853

근로빈곤층 '홀로서기' 적극 지원

우리시가 올해를 '보호사각지대 해소 및 일을 통한 빈곤탈출의 해'로 정하고 본격적인 저소득층 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핵심은 저소득 근로

빈곤층(Working Poor)이 일할 수 있는 기본여건을 조성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안정된 노동시장을 공급함으로써 실질적인 빈곤탈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리시는 전년대비 122억이 증액된 1천128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인턴형 자활근로를 적극 활용, 기업인턴제,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알선 등 빈곤대물림 차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문의 _ 시 사회복지봉사과 440-2922

인천지하철- 시내버스 양방향 환승 할인



우리시는 4월부터 시내버스에서 인천지하철로 갈아타거나 그 반대의 경우 요금의 50%가 할인되는 양방향 환승할인제를 시행한다.

인천지하철에서 내려 30분 안에 버스로 갈아타거나 버스에서 내려 1시간 안에 인천지하철로 갈아탈 경우 요금의 50%를 할인받는다. 이때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좌석버스 450원, 간선버스 400원, 지선버스 280원, 지하철 400원씩 각각 할인된다. 우리시는 경인전철 환승할인 확대시행을 위해서도 한국철도공사와 협의 중이다.

문의 _ 시 교통기획과 440-3874

세계 2위 포워딩 업체, 인천공항에 물류센터 건설

세계 2위의 국제 포워딩업체인 독일의 쉐커사(社)가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물류센터 건설을 위한 조인식을 갖는다. 조인식 이후 쉐커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물류단지내 연면적 2,863평 규모의 물류 허브센터를 건설할 예정이다. 독일계 물류기업인 쉐커는 매출액 세계 2위의 국제 포워딩업체로 전 세계에 1,100개의 지점과 3만 8천여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초대형 물류기업이다. (2005. 3. 14일자 기사)

제공 _ 노컷뉴스 (www.cbs.co.kr)

중구 주차장 마련 무상지원



중구가 내집주차장 갖기 활성화를 위해 유형별로 최고 150만원까지 무상 지원한다. 개인 주택이나 다세대 및 연립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없앤 뒤 주차장을 확보하는 주민에게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구가 부담한다. 주차장 설치비용의 70%, 유형별 최고 150만원까지 무상 지원한다.

문의 _ 중구청 760-7114

동구 동구보건소 골다공증 무료검진

동구보건소는 매주 월요일 보건소 광장에서 ‘골다공증 무료검진’을 실시한다. 동구 주민으로 만 35세 이상의 여성 가운데 500명을 대상으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해 X-선 골밀도 측정 방법으로 골다공증 여부를 검사한다.

문의 _ 동구보건소 770-5720

남구 까르푸에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개설

남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대형 유통점과 협약을 맺고 관내 중소기업 제품 전시 및 판매장을 마련한다. 남구는 최근 한국까르푸와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5월 중 개점 예정인 용현점(남구 용현동 292의 2) 2층에 남구 중소기업 전용 상설 전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매장 규모는 30평으로 이 곳에서는 관내 20~30여개 중소기업들과 인천대 창업보육센터 입주 업체들의 제품이 전시, 판매된다.

문의 _ 남구청 887-1011

연수구 야생고양이 중성화 사업 시행

인천에서 처음으로 연수구가 야생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나섰다. 날로 증가하는 고양이들이 음식물을 비롯한 쓰레기봉투를 파헤쳐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전염병 전파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는 올 연말까지 연수1동 유천아파트를 시범지역으로 선정, 야생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수술(불임수술)을 한 뒤 포획장소에 풀어줄 계획이다.

문의 _ 연수구청 817-1011

남동구 수도권해양생태공원에 생태학습관 조성



남동구가 논현동 해양생태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볼거리와 편의를 제공하고 생태체험 학습교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생태학습관을 조성한다. 지상 2층 연건평 200평 규모로 지어지는 생태학

습관에는 전시공간, 전망대, 전망데크 등이 들어선다.

문의 _ 남동구청 466-3811

부평구 쓰레기 재활용 공모전 개최

부평구는 자원 절약에 대한 시민의식 확산과 재활용 실천 풍토 조성을 위해 ‘폐품을 이용한 재활용 작품 전시회’를 갖기로 하고 이달 30일까지 작품을 공모한다. 공모는 부평구 거주자와 관내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빈 캔·빈병, 플라스틱과 폐지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이용해 만든 생활용품이면 된다.

문의 _ 부평구청 527-5911

계양구 어린이문고 어린이 문화공간으로 부상

계산4동 ‘어린이문고’가 어린이를 위한 여가활동 인기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어린이문고는 계양구에 자리잡은 유일한 어린이 도서관으로 지난해 12월 계산4동사무소 개청과 함께 문을 열었다. 어린이문고에는 총 2천500여권의 어린이 도서가 비치돼 현재까지 총 1천500여명(1일 50명)이 이용했다. 특히 이곳을 이용하는 5~6세의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구연과, 크레파스반, 독서지도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돼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문의 _ 계양구청 551-5701

서구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내가족처럼

서구에 위치한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에서 이주노동자 전용 치과 진료소 ‘희망세상’ (소장 고승석)을 개소했다. 진료소는 인천시 서구 가좌1동 영창테크노타운(구 영창약기) 2층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내에 있다. 건치 인천지부 소속 의사와 간호사 70여명이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동안 돌아가며 진료에 나선다.

문의 _ 573-2870

강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본격화

강화 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도시가스 공급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1단계로 올해 안으로 갑곶리 일원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강화읍 및 선원면 지역, 2단계로 길상면을 비롯한 강화 전역에 연차적으로 공급한다.

문의 _ 강화군청 934-2183

웅진군 섬 관광 마스터 플랜 추진



웅진군은 섬 관광의 마스터 플랜이 될 연안관리지역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10년동안 세부안을 실행에 옮길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영흥도가 어촌체험마을과 연계한 갯벌체험지구로 조성된다. 또 자월면 대이작도와 북도면 장봉도는 모래톱 체험을 중심으로 크루즈 거점으로 개발된다. 이와 함께 덕적도 국수봉 주변과 서포리해수욕장 주변의 적송군락과 덕적도 북서쪽 해안인 ‘능동자갈마당’을 생태계보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문의 _ 웅진군청 880-2114

송도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제2연륙교 착공

송도 남단에서 영종도 사이 해상을 연결하는 제2연륙교(12.3km) 건설 공사가 이달말부터 시작된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착공에 앞서 이달중 시행업체인 KODA(영국 AMEC, 인천시 합작)사와 공사를 위한 실시협약(변경안)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영국 AMEC사가 참여하는 외자유치 민간제안사업으로 진행되는 제2연륙교 건설에는 모두 1조1천억원 가량이 투입되며 오는 2009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2연륙교는 송도 남단과 영종도 사이 해상(12.3km)을 연결하는 왕복 6차선의 교량으로 교각과 다리 상판을 강철 케이블로 연결한 사장교(斜張橋) 방식으로 건설된다. 제2연륙교는 송도 남단에서 도심 고속화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 제 2, 3경인고속도로와 영종도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과 곧바로 연결된다.



‘송도국제도시’로 문패 달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신도시 명칭을 ‘송도국제도시’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송도국제都市는 그동안 송도신도시, 송도지구, 송도경제자유구역, 송도첨단도시, 송도정보화신도시 등 이용자의 편의에 따라 다양하게 불려오면서 지역 명칭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어왔다. 영종지구와 청라지구도 향후 도시개발과정을 지켜보면서 각 지구의 특성에 맞게 ‘영종 물류도시’, ‘청라 레저도시’로 명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송도신항 공동추진 협약체결

송도신항 개발이 본격화됐다. 안상수 시장은 윤석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PH(미국 파인사와 독일 힌덴베르그사 합작 법인)코리아와 함께 지난 3월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두산산업개발, 대림산업, 신성건설, LG건설, 대우자동차판매(건설부문), 한양건설 등 국내 9개 건설사 관계자와 ‘송도신항 공동추진 협약서’ 서명식을 가졌다.

송도신항만 건설사업은 오는 2010년까지 총 21억달러를 투입해 송도국제도시 남측에 부두 12선석을 건설하고 항만 및 배후부지 160만평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PH코리아측은 오는 5월 해양수산부에 송도신항 사업허가서를 낸 뒤 오는 2007년 상반기 착공해 오는 2010년 준공할 예정이다. PH포트 컨소시엄은 송도신항 개발을 위해 지난해 4월 인천시와 15억달러의 외자를 투자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같은 해 7월 현대건설 등 국내 7개 건설사와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경제자유구역 올해 50억불 유치

정부는 올해 경제자유구역내에 5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고 외국학교·병원 1~2개도 유치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와 관련 현재까지 영국의 AMEC사와 인천공항 북쪽의 국제업무지구개발(20억 달러)에 대해, 미국 파인사와 송도 신외항개발(15억 달러)에 대해 각각 MOU를 체결한 상태로 남은 15억 달러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의 차이나시티 개발과 테마파크 조성 등을 통해 유치할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내에 들어올 외국학교는 하버드자문그룹을 통해 찾고 있으며 미국 병원 1~2곳과 접촉하고 있다.

문의 _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53-7114

‘접근권에 초점 맞춘’ 조례제정에 집중을



교사회위원회 안병배 의원은 “조례제정에 있어 주민발의보다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것이 예산확보나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보다 능률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임희정 의원은 “장애인 등의 이동권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제정되었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구체적인 계획은 조례제정을 통해 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도심특위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 시찰



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도심권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지난 2월 9일까지였으나 지난 134회 임시회에서 6개월을 연장하여 오는 8월 8일까지이다.

제5차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개최



개 증가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선거구가 재확정 되어야 됨에도 이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방 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확정함에 있어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이므로,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허용기준 도입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합리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지방의회 주관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구획정안을 국회 및 정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동법 개정건의안’을 낼 것을 제안했다. 이날 제5차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는 지방자치제도 개선사항 및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문의 _ 시의회 공보팀 (440-6054)

남·북 화해와 협력 인천이 이끈다



지난해 인천서 개최된 6·15 우리민족대회

지난해 말 ‘통일냄비’라고 해서 국민의 관심을 뜨겁게 불러일으킨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시의 한 주방용품 제조업체 개성공장에서 생산한 첫 시제품이 출하 당일 남쪽 주부의 손에 전달된 것이다. 당시의 놀라움과 반가움은 대단했다. 현대아산과 북한의 조선중앙 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 건설에 합의한지 4년 만의 결과물이 었다. 이제 남북교류의 흐름이 거센 물결을 이루고 있고 그 효과와 파급력을 체감하기란 어렵지 않다. 이는 경제적 시너지효과와 더불어 통일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우리시의 주도적 역할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바야흐로 남북교류의 거점으로 인천이 뜨고 있는 것이다.

우리시는 지정학적 여건과 인프라를 십분 활용, 전략적 차원에서 남북교류 교두보 역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자치행정국(인도적 지원사업), 경제통상국(대북경제협력), 문화관광체육국(문화관광체육교류), 기획관리실(총괄 조정)간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추진체계가 구축되는 동시에 정책기획관실 내 남북교류지원팀이 그 선두에 서고 있다. 남북교류지원팀은 남북교류사업을 총괄하기 위한 전담팀으로 지난 2월 신설됐다. 이에 앞서 우리시는 지난해 11월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을 통해 오는 2009년까지 총 200억원의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조성하는 등 제도적, 재정적 기반구축에 박차를 가해왔다. 지난 2월 25일 개최된 인천-개성 연계발전 전략 최종 용역보고회에서는 개성을 생산기지로 하고 물류의 중심축으로 인천, 금융 중심축으로 서울을 연계 개발하는 골드트라이앵글 전략이 제안되기도 했다. 현재 우리시가 남북협력사업자 선정을 통일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로 명실상부한 남북교류 창구이자 거점으로 도약해 가는 과정에 있다.

글 _ 지영일 (편집위원 · openme@incheon.go.kr)

상생의 파트너십 시의회도 ‘한 몫’



놓고 있다. 특히 조례에 따라 총 200억원에 이르는 남북교류협력기금 가운데 올 상반기중 40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특위는 향후 문화와 체육 부문에서의 교류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영과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활동할 계획이다.

시의회 역시 ‘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위원장 추연여의원, 이하 특위)를 출범시키는 등 남북교류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특위는 개성공단과의 연계사업 확대와 민간 차원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말 발족했다. 특위는 타시도의 남북교류활동 사례 학습을 위해 서울, 경기, 강원권을 이미 둘러보았고 지난 1월 25일에는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남북교류의 기본 방향설정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1.4Km의 거리를 두고 마주하고 있는 북의 개풍군과 남의 강화군을 연결하는 연륙교 건설을 통한 물류기능 극대화를 시 집행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기업대표자와의 간담회, 개성공단 입주기업 실태파악에 나서는 등 바쁜 일정을 잡아

시민친화 서비스 ‘눈에 띄네’

주차장을 비롯해 운동경기장, 지하도상가 등 지역내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기두). 현재 우리시 공단은 문학경기장, 송의종합경기장, 계산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과, 지하도상가, 주차시설, 장묘공원관리사업소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시민친화적 시설관리와 프로그램으로 ‘선진 운영’의 모범이 되고 있다.

시민친화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송의종합경기장(882-1034)이 시민들에게 생활체육의 메카로 친근하게 다가왔다. 2002년 이후 일부 체육 선수들에게만 열려있던 운동장의 문이 일반시민들에게도 활짝 열림으로써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한다. 종합경기장(축구장, 야구장, 체육관, 수영장)을 관리하고 있는 송의경기장관리사무소는 현재 종합경기장을 활용한 어린이축구교실을 비롯해 수영, 헬스, 사교댄스, 요가, 재즈댄스, 에어로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시립도원수영장에서는 실버수영·주말수영·아쿠아로빅·유아풀·스킨스쿠버·장애인수영교실을, 실내체육관은 요가교실, 사교댄스·방송댄스·살사댄스, 태권·태극권·기공체조, 필라테스, 검도, 농구 등의 프로그램을 2007년까지 점차적으로 편성해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각 프로그램은 20~50명으로 구성되며 새벽과 저녁 시간대로 편성해 선택의 폭이 넓다. 운영 시간과 수강료는 프로그램마다 달라 전화로 세부사항을 문의하는 것이 좋다.

문학경기장(456-2114)의 경우 자연친화적인 환경과 다양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건전한 여가 선용의 장으로 애용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모든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단학기공을 보조경기장 옆 문학정에서 무료로 운영한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7시까지로 월~금요일까지다. 접수는 수시. 초등학교 대상의 문학 브라질 유소년축구클럽은 보조경기장을 이용해 매주 월·수요일 저학년반과 화·목요일 고학년반을 나눠 진행한다. 월회비는 5만원이며 수시로 접수한다. 이밖에 자전거교실도 운영한다.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이며 야구장 주변에서 실시한다. 회비는 2만원이다.

계산국민체육센터(556-2146)는 개관 3주년을 맞아 벌써부터 올 하반기 계획수립에 바쁘다. 오는 9월 9일 경에는 댄스, 검도, 유아스포츠단, 노래자랑 등 그간 운영된 프로그램 작품 발표회를 예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여름방학 시기인 8월에 맞춰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방학특강(수영, 농구, 탁구, 합합댄스, 요가)도 준비하고 있다.



유료주차장 무료개방 및 확대

주5일근무제 확산에 맞춰 일요일 노상 및 일부 노외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 인력 부족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주차장 역시 무료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계획에 따르면 차량 생산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주차장 이용 차량에 대한 무상 점검서비스를 연중 시행하고 자치구가 문화행사나 구민의 날 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 협조키로 했다. 아울러 일요일을 제외한 국경일 등 공휴일 주차장 무료개방도 추진한다.



자연생태동산 집중 운영

문학경기장내에 우리꽃 체험을 위한 ‘자연생태동산’이 조성된다. 문학경기장을 찾는 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복합문화 휴식 공간으로 손색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조성규모는 총면적 1,130㎡(북문광장 일원)으로 일반초화류, 야생화동산, 딸기동산, 수생원, 유채 및 보리·밀동산 등으로 꾸며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연생태동산’은 4월 23일부터 5월 5일까지 봄 동산으로 집중 운영되며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열리는 기간과 겹치는 8월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가을동산으로 운영된다.



문학월드컵 홍보관 운영

문학경기장 주경기장 북서측 1층에는 경기장과 월드컵축구대회를 홍보하는 홍보관(456-3100)이 자리잡고 있다. 경기장 조형물, 역대 월드컵 공인구 및 포스터, 홍보물 등 30종 154점이 전시되어 있으며 월드컵 및 시정홍보 시청각 교재 및 방문객 기념촬영을 등도 준비되어 있다. 연중 운영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인천광역시외국어봉사단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어 외국인에 대한 안내도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화장예약제

장묘공원관리사업소(522-4897)는 유가족에게 실시간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화장예약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장묘관리 시스템 중 화장예약부분을 웹으로 확장 구축해 기존 화장 및 납골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실시간으로 예약현황을 파악해 가능한 화장일시를 예약토록 하는 것이다. 오는 5월말까지 프로그램 시범운동을 거쳐 7월부터는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온라인 화장예약제가 정착되면 경황없는 유가족에게 훨씬 편리하고 신속한 장례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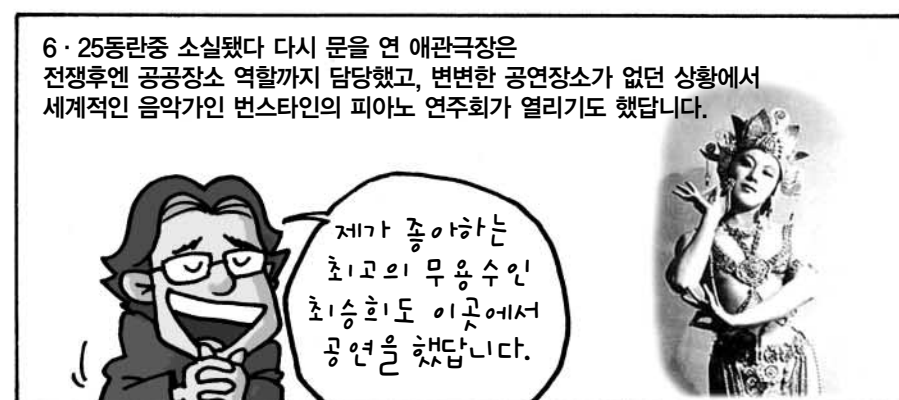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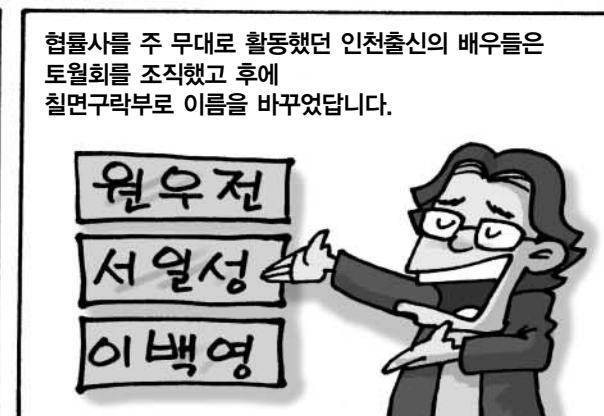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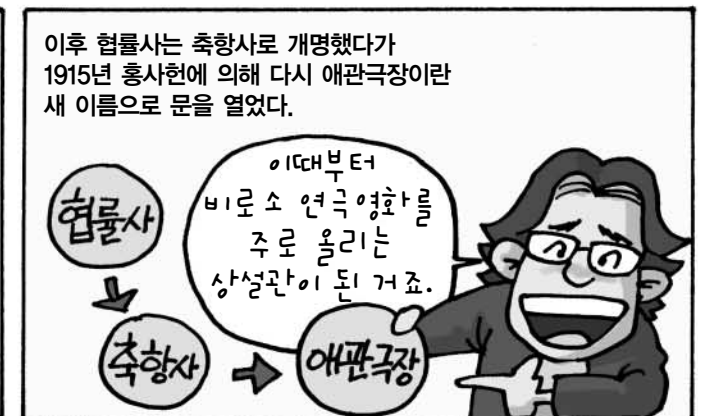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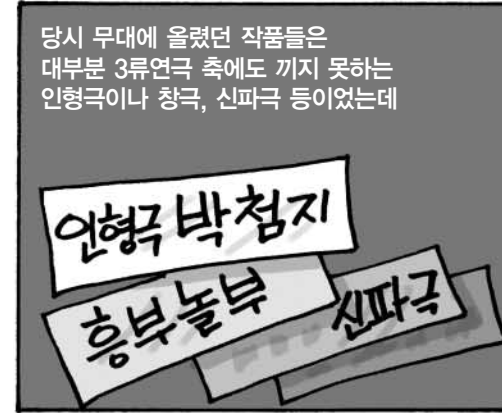


문의 _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579-2723)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공연장 '협률사'



그림 _ 김신 (www.cyworld.com/sinitoon)



자신의 의지력으로 치료 할 수 있어

글 _ 이현길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교수)

우울증의 주된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차란 태어나 자란 환경과 교육 등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우울증이라는 병이 기분과 관련되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로는 몸 전체의 상태가 나빠져 버리는 병입니다.

우울증이 되면 하루 종일 싫은 기분이 계속 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몹시 괴롭습니다. 억울한 기분이 계속되고 식욕이 없어져 체중이 줄어듭니다. 밤에는 잠이 잘 안 오고 동작이나 머리 회전도 평소보다 느려집니다. 책을 읽으려고 해도 여느 때처럼 술술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일도, 가사도 취미마저도 어쨌든 무엇인가를 하려는 의욕은 전혀 끓어 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어도 한숨을 쉬면서 서거나 앉거나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무엇을 생각해도 나쁜 편밖에 생각되지 않고, 자신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도 안된 인간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자신은 사는 가치가 없는 인간으로 생각돼 죽고 싶어집니다.

우울증의 치료는 먼저 감정과 정서적인 요인을 확인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우울증이 있어도 그 증상을 억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상담자는 자신의 슬픔과 분노를 직면한 후 역기능적인 사고와 잘못된 믿음을 탐색하도록 돕습니다. 여기에는 인지치료법이나 생활양식치료법 등 스트로크식 대화식의 치료방법이 있습니다. 우울증 인지치료는 바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버림으로써 보다 활기찬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단기간에 우울증이 재발하는 것을 막아 줍니다. 우울증 인지치료는 매주 한번씩 총 12주 동안 진행되며, 스트레스 관리 훈련과 인지 재구성 훈련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인지재구성 훈련** : 우울, 불안, 분노 등의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는 역기능적이고 비합리적인 생각들을 찾아내고, 이를 합리적이고 타당한 생각으로 바꾸어주는 훈련입니다. 인지 행동치료는 치료진이 치료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하고 교육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능동적인 치료, 즉 자가 치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매일 점검하고 자신의 상태를 기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 2.생활양식 훈련** : 상담자가 직접 환자의 정신건강과 태도를 보고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치료법입니다. 대부분 상담자가 치료해주기를 원합니다. 이 경우 다시 재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자의 상태에 알맞게 생활습관과 생각이 고쳐지도록 양식을 수정하는 치료법입니다.

어둡고 긴 터널에서 보다 밝은 세상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서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치료성공의 중요한 열쇠는 자신의 의지력과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자 하는 동기, 그리고 용기, 신념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준비가 되어 있다면 벌써 치료가 시작된 것입니다.

※〈굿모닝인천〉독자들에게 전문 우울증 검사(온라인)를 무료로 실시해드립니다. (www.zubu.com 온라인 상담실)



아이들 데리고 인천으로 오세요

지난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3일간 전국의 230여 선생님이 참가하는 ‘교원 수학여행 프로그램 팸투어’가 우리시에 실시됐다. 문화유산해설사인 나는 참가한 선생님들께 인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잘 보여 주고 알려져 학생들과 함께 인천으로 수학여행을 오도록 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행사에 참가했다.

인천의 미래 경제자유구역에서 인천항까지



제일 먼저 간 곳은 인천이 자랑하는 송도경제자유구역. 2020년까지 총 1,600만 평에 국제물류, 비즈니스 시설 등이 들어설 송도 경제자유구역은 게일사와 포스코가 합자하여 인천의 미래를 일구고 있는 곳이다. 사실 선생님들은 숫자 상으로 보여주는 미래보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엄청난

규모의 땅덩어리를 만들어낸 인간의 힘에 더욱 공감이 가는 모양이었다.

다음 코스를 버스로 이동하는 동안 인천의 역사이야기가 빠질 수 없었다. 비류 백제의 미추홀부터, 고려말 7대 여항, 조선시대 세조의 부인의 고향이 인천이어서 도호부로 승격된 내력 등을 얘기하자 차는 해경부두에 닿았다.

3,000톤급 해양순찰함 태평양5호는 지하 3층, 지상 4층 건물과 맞먹는 규모인데 기관실의 여러 장비들은 마치 전자오락실 같은 모습이었고 그 큰 배를 조정하는 핸들이 너무 작아서 놀랐다. 갑자기 찾아온 추위로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한 개항장 주변 관광 일정의 취소되어 차안에서 개항기의 인천을 설명만 해야 하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하루가 저물었다.

역사의 고장 강화, 그리고 다시 인천경제자유구역

밤새 눈이 내려 온 세상이 하얗다.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세 시간이 넘어서야 강화에 들어섰다. 이곳에서는 강화 문화유산해설사들이 안내를 맡았는데 우리 3호차는 조정녀 해설사님이 맡아 주셨다.

역시 강화에서도 눈 때문에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애초에 계획된 일정들이 변경돼 아쉬웠다. 이번 여행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강화곤충농원에 갔다. 전직 생

물 선생님께서 사재를 털어 만들었다는 곤충농원에서 수없이 많은 곤충 표본과 유충을 직접 키우고 관찰할 수 있는 곳까지 꽤 오랜 시간 관람을 했는데 끝까지 설명을 잘 듣는 모습이 마치 호기심 많은 우리 어린이들의 눈동자를 보는 듯해서 머리가 하얀 선생님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강화를 출발해 서구쪽을 지나며 경서동 녹청자 도요지를 이야기하는 동안 차는 경제자유구역 중 하나인 청라지구를 지나고 있었다. 청라지구는 2008년 완공을 목표로 국제업무, 금융, 첨단화훼, 레저단지조 조성될 계획이며 우리시의 대표기업인 GM대우자동차의 자동차 주행시험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백제시대 능허대를 통한 당나라와의 교역이 첫 번째 개항이라면 우리나라의 하늘문을 연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은 인천에 있어서는 1883년 제물포항 개항에 따른 두 번째 개항에 이은 세 번째 개항임을 강조했다. 인천공항 일대 또한 국제물류와 관광중심의 영종경제자유구역이라는 설명을 마치니 숙소로 도착했다.

드라마의 무대 인천

마지막날은 인천 앞바다의 섬 관광이었다. 삼목선착장에서 5분여를 배를 타고 들어가면 신도-시도-모도에 이른다. 제일 먼저 닿은 시도에는 얼마전 방영된 ‘폴하우스’와 ‘슬픈 연가’의 세트장이 있다. 영종에서 배로 월미도로 넘어와서 차이나타운에서 중국음식을 먹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자장면을 먹었다며 선생님들은 너스레를 떠다. 일정의 마지막 방문지는 LNG가스과학관이였다. 송도앞 바다에 인공섬을 만들어 한국가스공사 저장고를 만든 곳인데 저장고까지 가는 9km 정도의 길은 마치 해수면을 미끄러져 가듯 스릴과 맛이 있었다.

“2박3일 동안 선생님들께 보여드린 모습은 인천의 극히 일부뿐입니다. 더 많은 것을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아이들과 꼭 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라며 끝인사를 드리자 선생님들은 아낌없는 박수로 화답하시고 나는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글 _ 윤정자(인천시 문화유산해설사)

과외교사 만나보고 결정해야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아 굳은 각오를 다지는 학생들과 함께 부모님들도 여느때와는 다른 결의를 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자녀의 사교육에 따른 부담은 만만치 않다. 연간 4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교육시장은 기존의 개인과외, 학원을 넘어 인터넷으로까지 뻗어가고 있다. 여기에 최근 학습지 판매를 매개로 실질적인 1대1 과외를 주선하는 신종 방문교육업체들이 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인천 동구 송림동에 사는 원미연(47, 가명)씨는 아파트 옆동에 사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인천 소재 방문과외업체인 K사의 상담사원(영업사원)의 설명을 듣게 됐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뤄지는 과외라 불법이 아니고 1대 1 과외이므로 성적이 분명 올라갈 것이라는 상담사원의 설명에 원씨는 친구와 같이 계약을 했다. 수업은 영어·수학 주 8시간으로, 10개월간 총 260만원의 수업료를 10개월 신용카드할부로 결제했다.



그러나 막상 수업을 진행하고 3개월 동안 교사가 여섯 번이나 교체되고 그나마 주 8회 하기로 한 수업 계획도 이런 저런 이유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화가 난 원씨가 업체에 해지를 요구하자 업체에서는 4개월치 수업료와 계약금액의 30%를 위약금으로 내라고 했다.

연수구에 사는 김성미(44, 가명)씨도 2004년 1월 G사 방문판매원의 설명을 듣고 방문교육을 받기로 했다. 각종 학습지들이 뜯지도 않은 상태에서 쌓여만 가고 있어 다른 방법의 공부법을 찾고 있던 김씨는 1대 1 교육이라는 조건에 솔깃해 10개월간 수업을 받기로 하고 총 280만원을 신용카드로 10개월 할부 결제를 했으나 상담교사의 열성적인 설명과는 달리 실제로 수업을 하러온 방문교사는 별다른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1차례 수업도 하지 않은 채 업체에 계약해지를 요구, 매출취소 전표를 끊었지만 다음달에 신용카드 대금이 청구됐다. 업체에 항의하자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바로 매출취소 처리를 해줄 수가 없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독촉 끝에 김씨가 대금을 환불받은 것은 그로부터 7개월 후였다.

최근 사교육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방문교육은 업체의 상담직원이 소비자를 방문, 상담과 계약을 하고 방문교사들을 파견해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상담과 교육이 따로 이뤄지다 보니 설명과 다른 경우가 있다. 또, 방문교사 대부분이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라 자주 교체되고 수업에 무성의한 경우가 많아 분쟁의 소지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방문교육에 대한 법령이나 표준약관이 없어 계약의 해지나 위약금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업을 진행할 교사와 상담이 먼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할 경우 아이와 잘 맞지 않을 땐 위약금을 물고 중도해지를 해야 하므로 장기간 계약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계약을 할 때 수업 일수나 방문시간 등을 반드시 계약서에 기록하고, 해지에 따른 요건이나 귀책사유 등을 반드시 특약란에 기재해야 한다.

자료제공 _ 인천시 소비자생활센터(442-9872 <http://consumer.incheon.go.kr>)

인천은 국제도시이다. 국제공항과 항구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지정으로 하루가 다르게 외국인들의 발걸음이 찾아지고 있다. '음식'은 지역의 문화이자 역사이다. 우리시는 외국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맛 좋고 친절하며 깨끗한 음식점 90군데를 선정했다. 메뉴별로 매달 4군데씩 시리즈로 소개한다. (자료제공 _ 시 보건위생과, 아이디어엘)

한식 **부전** | 동구 화수동 295-9 | TEL : 765-5600

스페셜메뉴 : 버섯샤브, 두부전골
영 업 시 간 : 오전 11시30분~오후 10시
찾 아 가 기 : 일반버스 2번, 28번
이용 화도진공원 하차

양식 **헬로베이스볼** | 부평구 산곡3동 370-99 | TEL : 514-8982

스페셜메뉴 : 스테이크
영 업 시 간 : 오전 10시30분~오후 10시30분
찾 아 가 기 : 일반버스 24번 이용
화랑농장 하차

중식 **도일처** | 남동구 구월3동 1123-4 | TEL : 431-4008

스페셜메뉴 : 중식고급요리
영 업 시 간 : 오전 10시~오후 10시
찾 아 가 기 : 인천지하철
문화예술회관역 하차, 도보로 5분

양식 **심 샤브샤브** | 연수구 옥련동 581-25 | TEL : 833-5583

스페셜메뉴 : 샤브샤브
영 업 시 간 : 오전 11시~오후 10시
찾 아 가 기 : 일반버스 6번
이용 송도호텔 하차

어울 더울 함께 일하면 장애도 모른대요

지을구 씨(38세 · 계양구 작전동)는 정신지체 장애인이다. 몸은 불편하지만 그의 일상은 여느 사람과 다름이 없다. 아침이면 지하철을 타고 그의 일터가 있는 주안으로 향한다. 아침 9시 반, 그가 찾은 곳은 옛 시민회관 옆에 있는 어울림카페.

어울림카페는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커피숍 겸 카페다. 우리시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이 경제활동을 체험하게 해 일에 대한 의욕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남구 주안2동 인천명품관(옛 공무원연금매장) 1층에 문을 열었다. 어울림카페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정신지체 2급 또는 3급 장애인. 정식직원 5명과 훈련생 4명, 그리고 이들을 돕는 사회복지사 1명이 함께 일한다.

잠시 후 사교숙 씨, 연보라 씨, 광원학 씨와 사회복지사 장보경 씨 등이 차례로 카페 안으로 들어섰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바닥을 쓸고 테이블을 닦는 것이 근무의 시작이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손님 맛을 연습을 한다. 발음 연습과 함께 손님들께 인사하기 등을 반복에 반복을 거듭해 연습한다.

이곳에서 일을 하는 이들은 모두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카페훈련프로그램을 마친 사람들이다. 대인관계훈련, 주문법, 인사법, 음료만들기 등을 1년 6개월 정도 배운 후 복지관의 카페에서 실전연습을 해야 비로소 어울림카페의 정식직원이 될 수 있다. 훈련프로그램을 마친 이들 중에는 어울림카페에서 실무 훈련을 받기도 한다.

3월 4일부터 카페에 출근하고 있는 훈련생 연보라 씨(26세).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면 제일 먼저 큰 소리로 손님을 맞는 사람이 바로 보라씨다. 자리에 앉으면 사탕이 담긴 그릇을 가지고와 웃는 얼굴로 “사탕 드세요”라고 인사한다. 그리고 주문을 받는다. “커피 주세요.”라는 주문을 받아 카운터로 돌아오던 보라씨에게 장보경 씨가 주의를 준다. “보라씨, ‘일반커피와 원두커피가 있습니다. 어떤 커피를 드릴까요?’ 해야죠.” 뒤돌아서던 보라씨를 향해 손님이 외친다. “원두커피요~.” 이렇게 주문은 완료다.

이번엔 주방이 바빠질 차례. 음료 준비는 사교숙 씨(24세)와 훈련생 광원학 씨(30세) 담당. 벌써 카페에서 6개월째 일하고 있는 교숙씨의 손길은 능수능란하다. 반면 원학씨는 허둥지둥 하는 모습이 아직 서툴기만 하다. 이번에도 장보경 씨의 교육이 계속된다. “원학씨, 커피잔은 손잡이를 잡아야죠. 스푼은 여기 놓구요”. 끊임없는 잔소리(?)가 이어지지만 원학 씨의 얼굴은 여전히 싱글벙글이다.

서빙은 지을구 씨(38세) 몫. 그이 역시 6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터라 자신 있게 손님에게 음료를 서빙한다.

카페가 문을 연지 6개월째 되면서 값이 싸서 자주 찾는 단골손님도 생겼다. 사전 지식 없이 카페를 찾은 손님들은 자신들과 뭔가 다른 이들이 서빙을 하는 모습을 보고 특이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못해 카페에 들어왔다가 놀라서 발길을 돌리는 사람도 있다.

카페의 하루 매출액은 평균 5만원 정도. 수익금은 대부분 재료비 등의 카페운영비로 쓰이고 정식직원들에게는 월 10만원 정도의 배당금이 인건비로 지급된다.

잠깐 주방에서 나온 교숙씨에게 언제 가장 힘들냐고 물었더니 수줍은 얼굴로 “손님들이 없을때요.”라는 대답이 되 돌아온다.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담당 팀장인 이규강 씨는 “카페가 처음 생겼을 때는 ‘나도 직장을 갖게 됐구나’ 하는 생각에 많이들 좋아했는데 카페에 손님이 많지 않아 배당금도 적고 해서 다소 기운이 빠졌다”고 귀띔해 준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는다. 이곳이 장애인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카페에서 서비스업을 충분히 체험한 이들은 앞으로 패스트푸드점이나 대형 체인점, 나아가서는 호텔 바 등에서도 근무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한다. 실제로 서울 등지에서는 장애인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서비스업체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몸이 좀 고달픈들 어떠랴. 배당금이 좀 적으면 무슨 상관이라.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고 어엿한 사회인으로서 한 몫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한 그이들이다.

글 _ 정경애 (happyjka@incheon.go.kr) / 사진 _ 김정식 (자유사진가 · jsjsm@incheon.go.kr)

1 영업에 앞서 손님맞이 훈련이 한창이다. 2·3 서빙을 하고 주문을 받는 연보라 씨와 지을구 씨 4 음료 준비는 사교숙 씨와 광원학 씨 몫 5 손님이 없는 것이 가장 힘들다면서도 밝은 표정을 잃지 않는 어울림카페의 식구들



어울림카페는 아침 10시에 문을 열어 저녁 10시에 닫는다. 차와 음료를 주 메뉴로 하고 저녁에는 간단한 술과 안주도 판매한다. 4인용 테이블 6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4대가 있다. 어울림카페의 장점은 싼 가격. 커피나 녹차 등 대부분의 차와 음료는 2,500원이고 제일 비싼 아이스크림도 4,000원이다. 창가에 앉으면 테라스에 심어 놓은 꽃들이 마치 집 앞의 정원을 보는 듯하다. 푸른색과 노란 불빛이 어우러지는 실내에 아늑하고 포근하다. 또 단체로 이용할 수 있는 큰 홀은 문을 닫으면 외부와 차단되기 때문에 세미나나 비밀(?) 모임을 하기에도 제격이다.

예약문의 _ 866-3270



향에 취하고 맛에 젖어든다

아주 먼 옛날, 꿈을 아리따운 여인으로 탈바꿈시킨 쑥과 마늘이 있었다.

우리나라 최초, 최고의 허브 이야기다.

우선은 향기로 우리의 감각을 유혹하고 그윽함으로 사로잡는다.

그 다음엔 우리를 더욱 청정한 인간으로 새롭게 만들어줄까?

독특한 색·향·맛을 지닌 식물 '허브'

흔히 듣게 되는 허브란 말은 라틴어의 푸른 풀을 의미하는 'Herba'에서 왔으며 잎, 줄기와 뿌리 등이 식용, 약용에 쓰이거나 독특한 향기나 향미가 이용되는 식물을 일컫는다. 우리가 상용하는 쑥, 파, 마늘, 생강, 고추 등 채소류와 양념류도 여기에 해당한다. 허브의 기능에는 우선 약리작용이 있다. 옛날부터 건강의 유지와 병의 치료에 쓰였고, 차나 약술, 방충, 방부제로서의 해충구제, 식료품이나 의류의 보존에도 귀중한 역할을 하며 염색에도 쓰인다. 또한 향기가 독특해 날것(生)으로 또는 건조시키거나 기름을 추출하여 향장료나 포플리로도 쓰인다. 특히 채소로서의 허브는 비타민이나 미량원소 등 미네랄을 공급하는 영양원이 된다.

허브 맛보기

허브는 소화, 수렴, 이뇨, 살균, 항균작용 등을 돕는다. 이를 식재료로 사용할 경우 식욕을 자극하여 소화흡수를 돕고 노화방지 등 신진대사에 기여한다.

가장 손쉽고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방법 중 하나는 차로 마시는 것이다. 허브차는 치료를 겸한 예방의 효용이 특징이며 카페인인 없는 차라는 것과 알카리성 식품이라는 점이 매력이다. 스트레스에 쌓인 현대인의 긴장을 풀어주고 피로를 해소하여 진정, 안면, 각성, 해열, 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 제반증상을 조절,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대개는 한 가지 허브 또는 몇 가지를 섞어서 차를 만드는데 1인분에 건조시킨 것은 1차숟갈, 생체는 2~3잎을 넣는다. 생체로 이용할 경우에는 뚜껑이 나는 것도 있으나 이때는 레몬즙을 첨가하면 된다. 기호에 따라 넣는 양을 조절하여 맛과 향을 음미하면서 마신다.

- **캐모마일티** :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 감기 예방 및 치료에 좋다.
- **타임티** : 기침·인후염·구강염에 효과적이다.
- **민트티** : 산뜻한 향기가 있어 인기 많은 차 중 하나이다. 소화를 촉진하고 위통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비타민이 풍부해 감기 예방에도 좋다.
- **블루말로우티** : 블루빛의 차이며 목의 통증, 기침을 가라앉히는데 효과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핑크빛으로 변한다.

삶에 향기를 더 한다 ‘아로마 테라피’

‘향기요법’(aroma therapy)이라고 불리는 아로마 테라피는 허브에서 추출한 기름을 건강, 미용, 질병 예방 및 치료에 이용하는 자연요법을 말한다. 스트레스가 심한 직장인이라면 라벤더, 네롤리, 샌달우드에서 추출한 기름이 좋다. 아로마 테라피 램프를 사용하면 편리하다. 접시에 기름을 각각 2방울 떨어뜨린 뒤 접시 밑에 있는 초에 불을 붙이면 향이 방 구석구석 퍼진다. 아로마를 넣은 물로 목욕해도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 오랫동안 서서 일하는 사람은 여름에는 페퍼민트, 겨울에는 제라늄으로 족욕을 하면 발 아픈 것이 덜하다. 잠이 오지 않으면 마조람 또는 로만카모마일, 라벤더를 사용한다. 생리통으로 고생하는 여성이라면 클라리세이지, 라벤더, 멜리사 또는 장미기름 2방울을 캐리어오일(carrier oil·희석용으로 사용하는 기름)과 섞어서 희석시켜 배를 마사지하면 효과가 있다. 변비에는 로즈메리, 로만카모마일, 마조람, 카모마일로 복부를 마사지한다. 숙취해소에는 클라리세이지, 샌달우드, 스위트오렌지, 네롤리, 베르가모트, 라벤더, 로만카모마일, 베티버가 유용할 듯하다.

감기에 걸렸을 때는 유칼립투스 기름을 캐리어오일로 희석해 목과 가슴을 마사지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티트리, 페퍼민트, 라벤더를 램프 확산법으로 이용해도 좋다. 우울할 때는 클라리세이지, 라임, 제라늄, 로즈, 로만카모마일, 오렌지가 좋다. 머리가 아플 때는 라벤더, 페퍼민트 또는 마조람을 손에 발라 뒷목을 마사지하거나 관자놀이에 바른다.



내손으로 허브 키우기

우선 정원 같은 노지인지, 베란다나 실내 등 좁은 공간에서 화분에 재배할지를 정한다. 그 다음 채광, 통풍, 면적을 고려한 품종을 선택한다. 허브의 원산지를 아는 것이 잘 가꾸는 비결이 될 수 있다. 지중해연안지역 허브는 장마철의 고온다습한 기후는 견디기 어렵다. 장마~여름에 걸쳐 과습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유럽 중~북부지방 허브 특성은 겨울 추위에는 비교적 강하면서도 여름의 고온다습에 약하고 무더위를 싫어한다. 열대지역의 허브는 내한성이 없고 여름 더위에는 강하여 더 잘 자란다. 기온이 내려가는 가을부터 실내에 들여놓아 비닐 같은 것을 씌워서 보관하거나 온실재배가 유리하다. 이밖에 각각의 허브가 선호하는 환경을 파악하고 이식을 싫어하는 직근성인지 1년초인지 다년초인지 목본인지 등을 알면 재배에 실패하지 않는다.

시기적으로 요즘 화원이나 동네 꽃가게에 나가보면 허브 생화를 많이 취급하고 있다. 보통 종류에 관계없이 작은 화분 한개당 2천원에서 3천원 사이에 판매하며 크기가 큰 종류나 고급화분에 심은 것, 여러 종류의 허브를 보기 좋게 함께 심어 놓은 것들은 몇 만원에서 십만원대를 훌쩍 넘기기도 한다. 각자의 취향에 맞게 고르는 재미와 여러 가지들 함께 키우는 맛에 빠져봐도 좋겠다.

- **반그늘에서도 자라는 허브** : 스위트바이올렛, 무스크말로우, 마쉬말로우, 레디스 맨틀, 민트, 콤프리, 파세리, 레몬밤
- **습기를 좋아하는 허브** : 민트, 콤프리, 레몬 그라스, 레몬밤, 차이브스, 크랫슨
- **건조를 좋아하는 허브** : 세이지, 타임, 로즈마리, 라벤더, 히습, 센티트제라늄, 세이보리, 월계수



파스타리또



신세계백화점 ‘웰빙’



허브정원



허브앤아로마

인천 곳곳에 피어나는 허브와 아로마 향

건강에 대한 관심과 문화 향유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소박한 사치’를 누릴 수 있는 허브와 아로마 제품들에 대한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들 소비자와 시장을 겨냥한 전문매장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정문 길 건너편에 있는 ‘파스타리또’(434-6441)는 이태리 음식 전문점이면서 매장 입구 한쪽에 ‘허브 아일랜드’라는 아로마 전문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포천에 있는 허브농장 ‘허브 아일랜드’ 제품 120여종을 판매한다. 차로 마실 수 있는 허브 제품과 오일 에센스가 인기. 허브나 아로마에 대해 초보자일 경우 거부감없이 편안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을 소개받을 수도 있다. 구제품의 경우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OK CASHBAG 포인트 적용 업소이기도 하다. 이밖에 치료나 스트레스 해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기능성음반도 함께 판매한다. 식사 손님에게는 허브차를 무료로 제공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하며 토요일에는 밤 12시까지 한다. 연중무휴.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6층 ‘웰빙’(430-1777)코너에서 아로마 제품을 취급하고 있

다. 은은한 허브차 향이 오가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는 이곳은 널찍한 매장에 허브차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해 많은 이들이 구경삼아 찾는다. 다양한 실내 가습기와 각종 액세서리를 구비하고 있으며 화분도 구입할 수 있다. 매장 한쪽에서 웰빙체험 이벤트가 펼쳐지기도 한다. 나무곤충 만들기(3,500원), 핸드메이드 비누만들기(2,000~3,000원), 드라이허브 액자만들기(18,000원) 등이 그것. 인원수에 관계없이 고객이 원하면 수시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허브나 아로마에 대해 궁금하다면 전담직원의 친절 한 미소가 기다리고 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영업한다.

남동구청 건너편 만수3지구 안에 있는 ‘허브정원’(468-3188)은 이탈리아 스파게티 전문점이다. 동시에 아로마 테라피 전문점이기도 하다. 향기치료사 박주현 씨는 편안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른들과 그 어른들을 따라 오는 아이들을 생각했다. 그래서 허브와 아로마 제품을 접목한 음식점을 열게 되었다. 허브차, 허브 스파게티, 허브 돈가스, 허브 잎이 들어간 비빔밥 등이 있다. 6가지 종류의 허브차가 있으며 여러 가지 허브를 조화롭게 배합한

차를 맛볼 수도 있다. 가격은 4천원. 아기자기한 인테리어와 이색먹거리로 어린이들의 생일파티 장소로 인기가 좋고 독립된 공간을 구비하고 있어 각종 모임에도 적합하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영업하며 연중무휴다.

일반 매장과는 다른 성격이지만 ‘허브앤아로마’(567-1340)도 있다. 서구청 뒤편 좀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가장 많은 종류의 제품을 취급하며 도매점과 전시장을 겸하고 있다. 본점인 ‘허브앤아로마’는 타 수입업체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직접 수입과 국내 유통을 담당한다. 일산, 서울, 대전 등지가 주 거래 지역. 세련된 인테리어와 친절한 손님맞이는 없지만 각종 제품을 구경해 가며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다. 고객카드를 만들어 단골고객에 대해서는 포인트제를 적용한다. 초특가 상품을 한켠에 정리해놓고 3,000~5,000원대에 판매한다. 오전 10시부터 영업하며 사무실이 붙어 있어 밤늦게까지 문을 연다. 일요일은 휴무다. 기타 홀플러스 간식점(870-8223), 작전점(554-5010), 가좌점(583-5011)에도 ‘리빙아로마’에서 직영하는 아로마 테라피 전문매장이 있다.

글 _ 지영일 (편집위원 · openme@incheon.go.kr) / 사진 _ 김정식 (자유사진가 · jsjsm@incheon.go.kr)

깨끗한 흙이 키우고 소금바람이 어루만진 신령한 허브 ‘사자발쑉’

쑉은 우리의 대표적인 허브로 방항·방충제, 약용, 식용으로 오래전부터 널리 쓰여 왔다. 그중 사자발쑉(獅子足疳)이라 불리는 강화약쑉은 단군설화와 함께 신령한 식물로 대접받아 왔다. 쑉잎의 모양이 마치 사자발을 닮았다고 하는 이 쑉은 한약재 도매시장인 서울 제기동의 경동시장에서도 제일로 친다. 약쑉의 효능이 세계 제일이라 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이다. 강화약쑉에는 유파틸린(항암성분), 아세오시딘(항위궤양성분), 아밀라제, 콜린, 아르데모즈, 유칼립투스, 정유성분(시네올, 트리사이클린, 테르핀네, 보르네올, 피넨 등 65종), 각종 영양소(비타민 A,B,C,D, 단백질, 칼슘, 마그네슘, 철분, 칼륨, 인 등) 성분이 풍부하다. 특히 강화라는 지역 특성상 육지와는 다르게 오염이 안되고 약쑉재배에 좋은 화강암계의 토성을 갖추고 있어 깨끗하게 자란다. 또한 주위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염기 섞인 바람과 바다에서 피어 오르는 안개를 머금고 자라는 약쑉이라 각종 한의학 서적에 강화약쑉을 가장 효능이 좋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가장 좋은 약쑉을 만들기 위해 보통은 5월 단오절에 베어 바닷바람이 통하는 그늘에서 3년이상 숙성시키기 때문에 박하향의 그윽한 향기는 다른 지역 약쑉과는 뚜렷이 구분된다.



■강화약쑉 생산 및 판매처

생 산 자	소 재 지	연 락 처	생 산 품
인산 약쑉작목반	양도면 인산리	937-2092	건쑉, 뜸쑉
내리 약쑉작목반	화도면 내 2리	937-5132	
마니산 약쑉작목반	화도면 내 1리	937-1145	
보성사(햇님)	선원면 냉정리	933-2936	뜸봉 및 뜸기구
산림조합	강화읍 용정리	934-0789	쑉진액, 쑉환, 미용티슈
산애티에	선원면 냉정리	932-9898	쑉진액, 쑉환, 쑉비누, 쑉분말
인산식품	양도면 인산리	937-5001	쑉진액, 쑉환

They invited 'MOO'

지난 2월 25일 미국의 '대통령의 날(Presidents' Day)'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에 우리 청소년 웹진 'MOO'가 초대되었다. 미 대사관 주최 'U. S. Holiday series(미국 국경일 행사)'의 일종으로 매년 전국 규모의 행사로 열린다고 한다. 한·미 양국의 친목을 도모하고 더불어 '대통령의 날'을 맞아 미국 대통령 역사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다.



'The People and Their President-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대통령'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우리가 참석했던 서울의 미 대사관에만 100여명의 인원이 모였고 대구, 광주의 'American Corner'를 화상으로 연결해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날 모인 사람은 서울 유명 대학 정외과, 영어 토론 클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인 대학생들이 주류를 이뤘다.

Greenstein's 'The People and Their President' _ 그린스타인 박사의 강의

행사의 주축은 그린스타인 박사의 강의였다. 그는 미국 프린스턴대학에서 대통령학을 가르치고 있고 미 대통령 관련 저서를 많이 남겼는데 한국어로 번역돼 출판된 책도 많다고 한다. 화상연결로 진행된 강의는 서울, 대구, 광주 그리고 미국이 한 곳에 모이게 해주었다. 밤 9시 30분인 미국과 아침 9시 30분인 한국, 아무리 큰 시간의 제약도 둘 사이를 끊어놓지 못했나 보다. 극과 극의 시간에 모니터 속 그린스타인 교수의 강의를 대한민국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그의 강의는 미국 초대대통령인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의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그는 그린스타인 교수가 최고로 꼽는 대통령 중 하나였다. 민주주의 전통을 세워야 한다는 신념 아래 세 번째 선거에서 3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그 자리를 사양한 것이 이유이다. 교수는 그를 올바른 신념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묘사했다. 교수의 한마디 한마디를 매번 통역하며 진행해야 하는 까닭에 그는 많은 것을 전달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눈치였다. 1시간 정도의 강의 후 각 지역에 모인 사람들은 교수님과 질문을 주고 받는 시간을 가졌다.

Lunch and Group Discussion _ 점심과 단체 토론

그린스타인 교수의 강의 후 참석한 단체들과 점심식사를 했다. 메뉴는 샌드위치. 전국 각 지역에서 외국인 교사(Native Speaker)로 활동하는 인턴들도 함께 참석한 뜻 깊은 시간이었다. 우리는 'Pinetree Club'이라는 단체를 만났다. 서울 소재 대학생들이 모인 60년 전통의 영어 클럽이었다. 그들은 미 대사관에서 종종 이런 초대받는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다른 단체와 자유로운 접촉을 할 수 있어 좋다고 한다.

이번 행사는 미국의 역사, 대통령에 대해 아는 좋은 시간이었고, 이런 하나하나의 시도가 한·미 양국의 관계유지에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글 _ 이수진 (석정여고 2학년, 제5기 청소년웹진 MOO 학생기자)

남항과 송도신항 개발로 경쟁력 앞서



글 _ 이인석(인천발전연구원장)

인천항이 시련을 겪고 있다. 제2연륙교 갈등이 반년 가까운 진통 끝에 해결된 지가 엇그제인데 또 다시 복병이 나타났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지난 2월 25일 '전국항만 물동량 예측'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인천항의 물동량을 크게 축소시킨 것이다. 물동량 예측은 정부의 항만정책 수립에 활용되는 기본 자료이며, 물동량이 줄어드는 항만은 자연히 정책 우선순위에 밀려나게 마련이다. 물동량 예측은 항만의 미래를 좌우하는 판결문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따라서 물동량의 감소가 발표됨

으로써 인천항은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난 셈이다.

심지어 그 배경에 '인천항 주저앉히기'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어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KMI가 내놓은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 2011년의 물동량을 보면 2004년 12월에 나온 추정치의 1/3에 불과하다. 예측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인천항이 탄생하는 꼴이다. 다행히 KMI의 예측치는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크게 축소된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인천항의 현실과 내외 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데 있다. 도크항이라는 명에 때문에 경쟁력에서 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남항 개발이 빠르게 진척되면서 인천항도 본격적인 컨테이너항으로 변신을 서두르고 있으며, 송도신항에는 민자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북중국 항만과의 물류망이 하루가 다르게 두터워지고 있는 것도 인천항의 새로운 모습이다. 아직은 산업항 기능이 강하지만, 점차 무역항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인천항의 변모와 약진이 KMI 연구 보고서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인천항 물동량 축소의 동기나 배경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연구자의 과실이든 혹은 고의이든 일단 잘못이 밝혀졌으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만에 하나 정부 측 의사가 담겨져 있다 해도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지 않으려면 시정하려는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 국가차원의 항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엄밀하고 객관적인 물동량 예측은 필요하다. 더욱이 인천은 대규모 민자 항만건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사업성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물동량 예측은 정확해야 한다. 송도신항을 건설하려는 외국인 투자 기업은 이미 자체적으로 인천항 물동량을 조사한 바 있고, 이를 근거로 투자 사업을 결정한 것이다. 예측치에서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하늘과 땅 차이라면 어느 누구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도 KMI의 인천항 물동량 예측치는 바로 잡아야 한다.

말없이 떠나는 의사 선생님, 인천시 공의 김명수 씨



우리 시청에 이런 의사 선생님이 근무하고 있었는지 몰랐다. 시청이라 하면 시민들이 민원 서류를 제출해서 무슨, 무슨 허가를 받고, 또는 이의 신청을 하고, 또는 세금이나 사용료, 수수료를 내고 이런 저런 수속을 밟고 하는 일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행정 전문 공무원만 근무하는 곳인 줄 알고 있었는데, 김명수(金明洙, 35세) 씨 같은 공의(公醫)도 근무하고 있었다. 우리 나라 6대 광역시에 1, 2명씩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사 선생님들은 신분은 물론 공무원이지만 국방부 소속 공무원, 즉 군의관인 셈이다. 그러니까 김명수 씨도 현재 군인, 대위 신분이다. 그러나 그의 직책을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천광역시 보건정책과 역학조사관.

“군인이었으니까 이제 제대하는 겁니다. 다시 학교로 갑니다. 학교에 가면 연구 강사가 됩니다.”

또박또박 끊어 말하는 어투의 단정함. 진한 눈썹과 자주 미소를 머금은 두툼한 입술. 휘청거릴 만큼 크지 않은 키. 좀 기름하다 싶은 얼굴에서 풍기는 인상이 대체적으로 순박하고 선하면서 지성을 갖춘 신사의 느낌이다. 옛날로 치면 마을의 초시 어른쯤 되어 보이는 그런 인상이지 싶다.

물론 초시 어른에서 ‘늘 가래를 돋우는 헛기침과 범접 못할 지나친 위엄’은 제하고 말이다. 아무튼 그런 의사 선생님이 3년간 군 생활, 즉 인천광역시 공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전역하는 것이다. 2002년 4월에 부임했는데 어느새 3년이 지나 복무 기한이 차 버린 것.

남들은 다 군 부대에서 생활하는데 어쩌서 김명수 씨는 인천시청에 와서 근무하게 된 것일까. 김명수 씨가 군대에 입대하던 2002년은 군의관 모집 정원이 다른 해보다 줄었다고 한다. 그래서 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군의관 대신에 대부분이 공중보건의(公衆保健醫)가 되어 낙도 지역에 배치되게 되었는데, 내과 중에서도 감염내과(感染內科)를 전공했기 때문에 역학조사원(疫學調査員)이라는 특수 근무 형태로 인천시청에 근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근무지 배치 성적이 뛰어났기 때문이었다는 사실, 그것을 옆에 앉아 있는, 동종 업자(?)여서 유달리 정이 들 수밖에 없는 시 보건정책과 간호주사 김정윤(金貞倫) 씨가 안경 너머로 던지시 귀뜸해 준다.

“조금 섬섬하네요. 하지만 김명수 씨는 틀림없이 좋은 의사 선생님이 될 거예요. 이를테면 온화하고 너그러우면서 인간미 넘치는 진실한 의사 말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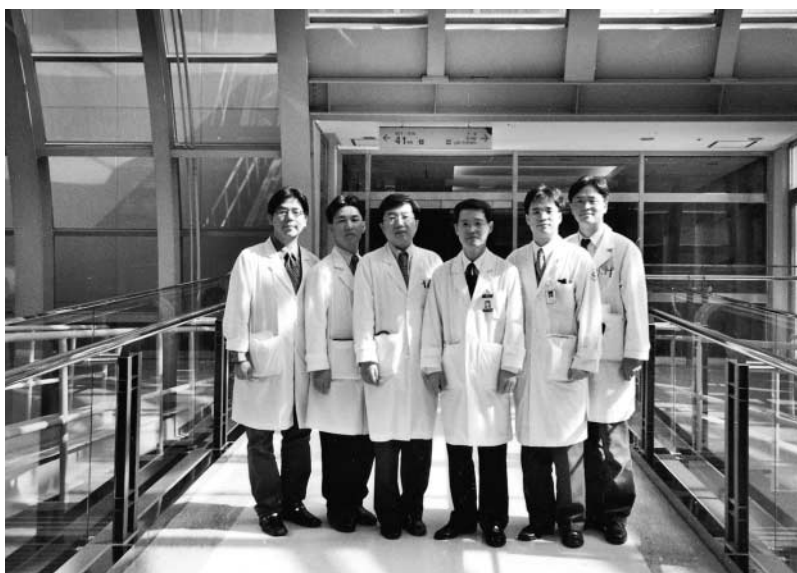
나이로야 까마득한 후배, 차라리 조카뻘 같은, 그러나 착하고 의젓한 김 선생을 보내는 것이 고참 간호주사 김 씨도 못내 서운한 모양이다. 그래도 봄에 떠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다. 늦가을쯤, 이 세상 모든 것이 모조리 조락해 버리는 그 눈물겨운 가을, 늦은 날에 떠나고 떠나보내는 것은 인간사에 가장 못할 일이다. 매화, 추우면서도 다정한 그 꽃잎이 있어서 봄이 나온 것이다.

간호주사 김정윤(金貞倫) 씨가
안경 너머로 던지시 귀뜸해 준다.

“조금 섬섬하네요.

하지만 김명수 씨는 틀림없이
좋은 의사 선생님이 될 거예요.

이를테면 온화하고 너그러우면서 인간미 넘치는
진실한 의사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못되었다. 김명수 씨가 제대하는 것은 이런 이별이 아닌데 엉뚱하게 감정이 비약했다. 그는 이제 모교 병원 세브란스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더 연구를 하고 더 의술을 연마해서 허준(許浚)이나, 이제마(李濟馬) 버금가는 명사가 될 것이다.

김명수 씨는 아쉽게도 가수 이미자의 '총각 선생님'은 아니다.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던 해에 결혼을 했다. 아내는 지금 캐나다에 가서 디자인 계통의 공부를 하고 있다. 겹쳐서 우리 유학생들에 관한 코디 역할을 한다고 한다. 방학이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일이 반복되지만 아무렇지도 않다며 참으로 선하고 무뎠던 웃음을 웃는다. 그럼 아기는 또 언제 가질 것인가. 술도 담배도 하지 않는 사람이니 퇴근 후면 그냥 집으로 돌아와 텅 빈 방에서 컴퓨터를 만지거나 책장이나 넘기겠지.

이것이 요즘 젊은 사람들의 사고인지 모른다. 그렇지만 아무리 신세대의 열린 사고 방식이라고는 해도 아내가 없는 것이 금세 들통 난다.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것이다. 우선 그가 입은 옷의 색깔이 영 맞지를 않는다. 의사 선생님의 누른색 카디건 속에는 흰색 가는 줄이 쳐진 분홍색 와이셔츠, 어두운 고동색 계통의 넥타이, 아무리 보아도 색깔이 제각각이다. 이쁜 아내가 곁에 있었다면 그야말로 제대로 코디가 되었을 것이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해 드릴까요? 제 이름이 원래는 ‘영신’이었대요.”

지청구를 할 듯하니까 눈치를 챘는지 얼른 엉뚱한 이야기로 말머리를 돌린

다. 그런데 들어 보니 이야기 속에 소설가 김홍신 씨가 등장한다. 김명수 씨의 부친은 원래 하사관으로 직업 군인이었다고 한다. 부친이 강원도 철원에 근무할 때 학훈단 출신의 김홍신 소위가 처음 부임해 오면서 소대장과 선임하사로 만났다는 것이다. 그때 김명수 씨가 태어났고, 그래서 소설가 김홍신 소위가 작명을 해 준 것이 영신이었다. 그러나 그 이름은 훗날 김명수 씨 할아버지께서 집안의 돌림자인 수(洙)자를 넣어 지은 지금의 이름을 정식으로 호적에 올리는 바람에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의 이야기는 그다지 썩 재미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득 20년도 더 지난 1980년대 초 인천의 문인 카페 ‘시랑(詩廊)’에서 무슨 문학 행사가 끝나고 김홍신 씨와 함께 했던 저녁이 생각난다. 얼굴이 닳았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도 있다.

“구월동 시청 근처 원룸에서 살았는데 이제 다시 서울 신촌으로 이사 가야 합니다. 저도 조금은 서운합니다. 여기 분들이 워낙 잘해 주셔서... 기억에 남는 것이라면 조류 독감이지요. 인천시청에 근무 하는 동안 경험했던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조류 독감이었습니다. 여기서 3년 근무하는 중에 그때처럼 긴장되고 또 바빴던 적도 없었습니다.”

SAS. 조류 독감이라면 김명수 씨가 부임하던 2002년 겨울부터 2003년 4월까지 중국, 동남아 지역에서 유행하면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사건이 아닌가. 특히 인천공항은 우리 나라 출입구로서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던 사건이다. 그때 김명수 씨가 실력 발휘를 한 것. 그 지역을 여행한 환자로 의심되는 여행객들을 접견하고 검역 결과에 따라 조류 독감 여부를 판별하고 격리를 결정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아무도 모르게 이 젊은 의사 선생님이 해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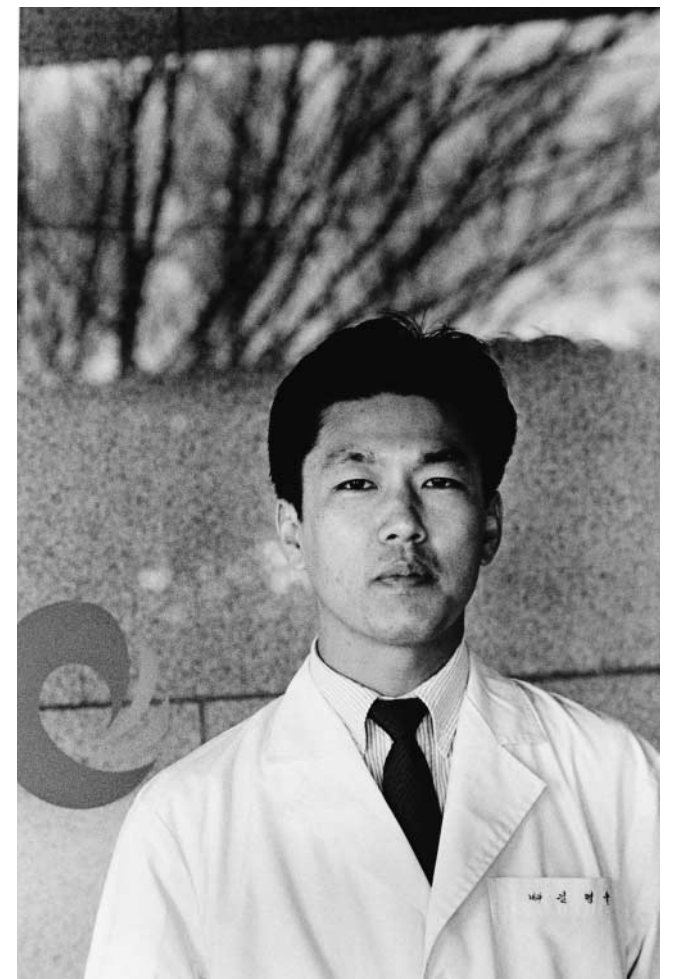
그밖에 3년 동안 그는 학교, 대규모 사업체 등 다중을 상대하는 집단 급식소나 큰 식당들에 대한 역학 조사를 벌여 전염병 예방을 통해 인천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했다. 이제 제법 인천을 알고 인천에 정이 들 만하니까 이 선한 얼굴의 의사 선생님은 떠나는 것이다.

“인천 정말 사랑합니다.”

인천과 별다른 인연이 없었던 마산 사람 김명수 씨가 그렇게 인천에 와서 3년 동안 인천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게 되었다고, 경상도 사투리 억양이 전혀 없는 말투로 말한다.

궁금하다. 그는 송의동 로터리 근처 마산집은 가 보았을까. 거기서 민어회를 먹어 보았을까. 김명수 씨가 술을 못한다 해도 좀 일찍 만났다면 그 집으로 데려갔을 것이다. 우리들 건강을 위해 있는 줄도 모르게 조용히 근무하다 떠나가는 젊은 의사 선생님. 가끔 인천에 와서, 그렇게 가끔 만날 수 있다면...

글 _ 김윤(시인 · eoel@hanmail.net / 본명 김윤식)
사진 _ 김보섭 (자유사진가 · ericahkim@yahoo.com)



비밀일기장에서

학교에 갔다 왔다. 다시 혼자가 됐다. 나는 다영이가 부럽다. 행복한 가정도 있고, 언니와의 우정도 있고 가족과의 사랑도 있고, 완전한 칼립소 여신의 섬에 오디세우스가 놀러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은 왜 좋지 않을까’ 하고 곰곰히 생각해봤다.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해서일까? 아니다. 엄마와 아빠는 이혼하거나 말거나 똑같다. 내 생각에는 다 같이 모여서 무슨 대화를 하지도 않고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언니는 언니대로, 나는 나대로였다.

나는 진짜로 언니가 도서부 좀 안했으면 좋겠다. 맨 처음에는 우리 가족도 꽤 괜찮았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부터, 언니가 도서부를 하고 부터, 엄마가 회사를 다닌 후부터 이상하게 다영이가 부러웠다.

이제 그래도 조금 좋아졌다. 혼자여서 좋은 게 아니라 비밀을 들어줄 일기장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일기를 쓸 때마다, 볼 때마다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난다. 집에 갈 때부터 혼자가 되지 않으려고 늦게 끝나는 친구를 기다려보고 집이 같은 방향이 아니어도 기다려 본다. 또 언니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도 한다. 언니는 나를 미워하나보다. 이제 혼자가 지겹다. 혼자가 정말로 싫다. (비밀일기장에서)

이미정 (남구 도화3동)



나는 개똥벌레

나는 어려서부터 말수가 없었다. 그런 탓인지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 같이 가는 현경이가 유일한 친구였고 둘은 엇비슷하였다. 집에서 학교까지는 꽤 먼 거리였지만 대화가 없었다. 현경이란 친구는 남자지만 예쁘장하게 생겨 여자 친구들이 많았다. 그 원인은 친 누나들이 많다는 것이었을 것 같다.

중학교에 올라가니 동네친구들 하고는 멀어졌다. 담임선생님께서 말없이 암전하 앉아있는 세 친구들을 잘 보아 주셨다. 집에 오는 길에 세 친구는 또 말이 없다. 확실히 친구란 소중한 말없이 자란 나는 사회에서도 적응하기가 힘들었다. 내가 말이 없다보니 주변 분위기가 그리 좋은 편은 못 되었다. 말 안한다고 뭐랄 사람은 없지만 집안 내력인걸 어쩌나. 나는 성격을 고치려 부단히 애를 썼지만 타고난 천성은 어쩔 수 없나보다. 술자리를 같이 하는 친구, 내 속 얘기를 들어주는 친구, 나와 필이 맞는 친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형구 (부평구 부평1동)

친구야 힘내

얼마 전 영화 〈친구〉를 보면서 친구의 의미에 대해 새삼 생각하게 되었다. 살아가며 만나는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인데 그 중에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3년 전 어릴 때 한동네에서 스스럼없이 지내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하소연하듯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사정이 너무 딱해 마이너스통장에서 돈을 빼 5백만원을 빌려줬다. 친구는 한 달 안에 갚아주겠노라고 했다. 하지만 세상일이란 마음먹은 대로, 뜻대로 되지만은 않는 것 같다. 친구는 급기야 빚에 몰려 살고 있던 집도 넘어가고 연락도 끊어졌다. 친구에게 빌려준 돈이 나에게 빚으로 남아 이자만 갚으며 어렵게 지냈다. 그런데 작년 10월,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조금씩이라도 갚아 가겠다면서... 그날 이후 다달이 친구는 가족의 생활비 조금만 남겨놓고 빌려간 돈을 보내오고 있다. 그렇게 하는 친구가 고마웠다. 좀더 우리에게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날이 오겠지... 친구야! 힘내.

강건우 (연수구 연수동)

뜻맞는 친구들

복지관에서 봉사를 시작한지 5년. 회준·한수 씨와의 첫 만남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 신문에 난 봉사자 모집 광고를 보고 모이기 시작한 만남이 지금은 서로의 눈빛만 봐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느낄 정도로 환상의 콤파를 이룬다.

매주 목요일 10시면 어김없이 모여 커피 한 잔을 시작으로 70명분의 어르신들 식사준비를 위해 다듬고 지지고 볶고 끓이고 사랑의 점심을 준비한다. 돌이켜 보면 처음에는 서먹해 마찰도 있었고 마음 상하는 일도 있었지만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 이해하고 어려울 때에는 힘이 되어주며 위로하고 감싸 주면서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

얼마 전에는 친구의 생일이 있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었다. 천원짜리 빵에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면서 함박웃음 짓는 친구의 얼굴을 보면서 끈끈한 정을 느꼈다.

비록 만남은 보잘 것 없었지만 지금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친구와의 만남. 소중히 간직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길 바란다.

유기연 (연수구 옥련동)

친구와의 첫만남

벌써 17년 전의 일이다. 면단위의 중학교를 졸업하고 시내의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된 나는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첫 등교를 하게 되었다.

시내로 가는 버스가 거의 1시간 간격으로 있던 때였는데 긴장한 탓인지 잠을 설치다가 늦잠을 자 버렸고 급기야 타야할 버스를 놓치고 말았다. 부랴부랴 시내 나가는 차를 얻어 타고 학교에 도착

했을 하고 보니 지각은 안했지만 마음대로 앉게 되어 있는 교실에 남은 자리라고는 맨 앞자리 뿐이었다.

키가 큰 편이었던 나는 쭈뼛쭈뼛 맨 앞자리에 앉았고 조금 있으니 나보다도 더 늦게 도착한 키가 좀 작은 아이가 내 옆자리에 앉는다. 서로 낯설어하며 앉아 있는데 담임선생님이 들어오셔서 한 달간 그 자리에 앉으라고 하신다.

얼떨결에 짝이 된 친구 선희. 나와 선희는 키 차이는 좀 났지만 지각으로 맺어진 인연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절친한 친구사이로 남아 있다.

어느새 두 아이의 엄마가 된 나는 아직도 가끔씩 친구와 고등학교 때의 지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그날 지각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친하게 되진 않았을 거라며...

한영옥 (남동구 남촌동)

친구야, 잘 있니?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네. 그래도 봄을 알리는 꽃의 여신은 나를 반기러 오겠지. 너 생각하니? 내가 임신해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있을 때 먼 길 마다않고 반여동에서 아구찜을 사 가지고 왔지. 처녀가 냄비 들고 오기 쉽지 않았을텐데 말이야. 17년 전의 일인데 어제 일처럼 느껴지는구나.

부산에서 남편의 발령으로 인천으로 온지도 어느덧 4년이란 세월이 흘렀구나. 처음 인천으로 오던 날 낯선 곳에서의 생활이 무섭기도 하고 겁나기도 했던 나에게 서울로 시집와서 살고 있는 너 큰 힘이 되어 주었지. 네가 있어 외롭지만은 않았단다.

친구야! 너 내가 얼마전 부친상을 당하고 슬퍼할 때도 서울에서 부산으로 한 걸음에 달려와 날 위로해줬지.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무수히 많은 인연들이 있겠지만 너와 나는 대학 때 만나서 지금까지 변함없는 우정으로 서로에게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지. 너 또한 나로 인해 행복해지면 좋겠단다.

친구야! 40이 넘는 나이에 대학편입해서 공부하는 너 정말 대단해. 힘들지? 복지관 실습은 무사히 마쳤는지 모르겠구나. 너 실습 마치면 한번 만나자구나 내가 맛있는 점심살게. 잘 지내고 만나는 날까지 몸 건강해라. 그럼 안녕!

우성순 (남동구 간석1동)



친구란!

친구란!
기대되고 설레게 하는
'하트'예요.
왜냐면 늘 새로운 면을
찾을 수가 있어서

친구란!
내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는
'거울'이에요.
왜냐면 늘 비밀 없이 터놓고 대화하니까.

친구란!
물과 같은 존재예요.
왜냐면 물 없이는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으니까.

친구란!
어려움에 처하면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진정한 친구는
나의 두 손을
꼭 잡아 주거든요.

친구란 말은
정말 좋아요.
서로가 서로의 소중함을 알 때
내 마음도 부자가 되지
않을까요?

박은솔 (제물포여중 1)

다음 달 테마는 ... ‘소풍’입니다

‘소풍’에 얽힌 재미있는 글(200자 원고지 3매 이내)과 사진을 보내주세요. 책에 실린 분께는 작은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사진을 돌려받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돌려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_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인터넷 신청 : www.incheon.go.kr → 굿모닝인천 메뉴 클릭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4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문의 _ 440-2072)



친구같은 언니

1970년 여름 2년 터울인 친구같은 친언니와 자유공원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동생인 나만 새벗유치원에 2년씩이나 다닌게 불만이었는데... 언니, 인상 퍼. 지금은 거꾸로 언니가 유치원 원장이라는 위치에 있잖아.
김은영 (남구 주안동)

모녀에서 친구로

엄마와 할머니 그리고 이모. 어느덧 주름살이 맨 얼굴보다 자연스러우시죠. 세분이 모이시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답니다. 6·25전쟁부터 고생하던 보릿고개이야기, 엄마 밑으로 8형제 이야기가... 이제는 엄마와 딸보다는 친구같이 사시는 세분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유희선 (동구 송현동)



X알 친구

서로 너무 많이 알아서 가끔은 거울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로 편한 친구입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올해는 좋은 인연을 만나서 혼자가 아닌 둘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딸 사탕 탐내지 말고...
김종수 (부평구 삼산동)



거울같은 친구

고등학교 1학년 짝꿍으로 만나서 지금까지 만나고 있으면 꽤 괜찮은 친구죠? 학교 다닐때 미팅 나가면 쌍둥이가 나온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생긴 것도 닮았고 하는 행동도 비슷했답니다.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지만 하루 건너 한번씩 만나기에 우리의 우정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김윤희 (계양구 용중동)

중학교때부터 지금까지

중학교때부터 지금까지 ~~~ 정말 친한 친구들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어느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바람이나 쐬려갈까'하는 한마디에 그 다음날 바로 강원도에 갑니다. 언제 봐도 반가운 얼굴... 언제 들어도 좋은 소리... '친구'. 이런 친구가 있어서 오늘도 전 행복합니다.
김윤경(부평구 삼산동)



우리반 친구들, 쌍둥이같죠?

1998년 관교여중 체육대회날이에요. 응원을 열심히 하다가 체육선생님께서 사진을 찍어주셨죠. 자꾸 이때가 그리워지네요. 친구들과 보낸 시간들을 추억하며 그때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오영미 (남구 학익1동)



고등학교 동아리친구들

고교 YMCA 때의 친구들과 1999년 봄에 설악산에 여행을 갔었네요. 10년도 더 된 우정으로 뭉친 친구들이기에 더없이 소중한 좋은 친구들입니다. 고교 시절 각기 다른 학교를 다니면서 동아리활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나이가 되었네요.
윤은례 (남구 도화1동)

친구와 마이산에서

7년전 마이산에 갔을 때랍니다. 여행을 좋아했던 친구와 전 주말이면 일상에서의 탈출(?)을 시도하곤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각각의 가정에 묶여 탈출은 못하지만 그때의 추억을 발판삼아 열심히 살자고 다짐해 봅니다.
한경숙 (계양구 병방동)



info box

언론 보도피해 구제제도가 바뀝니다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언론중재제도를 이용하세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신문이나 방송, 잡지 등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중재신청을

할 경우, 빠른 시일 안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추후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관입니다.

2005년 7월 28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언론 보도피해 구제제도가 바뀝니다. 조정제도와 중재제도가 모두 도입됩니다.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조정제도 이외에, 중재부의 중재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재제도가 신설됩니다.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청구 외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재신청 대상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 매체로 확대됩니다. 중재신청 기간이 길어집니다. 새로운 법률에 의하면, 중재신청은 문제의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보도가 나온 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문의 _ 언론중재위원회

(02-397-3000, 3010, 3100 www.pac.or.kr)

2005년도 과학주간 행사가 열립니다

우리시는 4월 21일 '과학의 날'을 맞아 과학주간행사를 엽니다.

• 제8회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상 시상식

- 일시 : 4월 21일(목) 15:00
- 장소 : 송도테크노파크 갯벌타워 2층(국제회의장)
- 시상부문 : 과학상(대상 1명, 금상 1명) / 기술상 (대상 1명, 금상 1명)

• 과학의 날 기념 초청강연

- 일시 : 4월 21일(목) 16:00
- 장소 : 송도테크노파크 갯벌타워 2층(국제회의장)
- 초청연사 : 가천의대 뇌과학연구소 소장희소장(예정)

• 부대행사

- 행사기간 : 4월 18일(월)~23일(토) 10:00~17:00
- 장소 : 송도테크노파크 국제회의장 로비 및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연구소
- 세부내용
 - 과학영화상영 : 10:00 (투모로우), 15:00 (월드 오브 투모로우) (단, 4월 21일은 과학기술상 시상식으로 상영하지 않음)
 - 인천이 최초/원조인 내용 판넬 전시
 - 기관 및 기업 연구개발 성과물 전시

문의 _ (재)송도테크노파크 전략기획실 (260-0720, 0726, 0752)

내 건강·내 가족 보호를 위한 황사 특보제

국민행동요령에 다함께 참여합시다.

황사로부터 내 건강·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황사발생 기상정보』를 확인하여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황사발생 확인 3가지 방법

방송매체를 통한 확인

TV, 라디오 등 방송 매체의 일기예보를 주의깊게 시청

기상청 및 국립수위과 검의원 홈페이지 수시확인

- 기상청 www.kma.go.kr
- 국립수위과학검역원
www.nvrqs.go.kr

전화를 통한 확인

- 기상청 : 02)841-0011, 02)831-0365, 국번없이 131(타지역 기상정보 : 지역번호+131)
- 국립수위과학검역원
031)467-1851, 1853

□ 황사발생전(황사예보시)

• 가정에서...

- ▶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하고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활동 자제
- 외출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의복, 위생용기 등을 준비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 ▶ 기상예보를 청취,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검토
-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 맞벌이 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학습대책 등 수립
- ▶ 황사대비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 축산·시설원에 등 농가에서...

- ▶ 가축이 활동하는 운동장 및 방목장의 가축 대피 준비
- ▶ 동력분무기 등 황사세척용 장비점검·정비
-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점검
- ▶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볏짚등에 비닐 씌우기

문의 _ 시 환경보전과 (440-3522)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 신청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한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구입금액의 일부를 현금급여비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구비서류
 -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1부(공단 전국지사에 비치 또는 건 강보험홈페이지 출력 가능)
 - － 장애인등록증사본 1부.
 - －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진료담당 의사 발행) 각 1부
 - － 영수증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영수증

※ 단,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목발·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의 경우 처방전 및 검수 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문의 _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1588-1125)

인하대병원 무료 건강 강좌

인하대병원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한 무료 강좌를 다양하게 개최 합니다.

- 특별 무료 공개강좌
 - － 일시 : 4월 8일(금) 오후 15:00
 - － 장소 : 인하대병원 3층 대강당
 - － 강좌내용 :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 밤이 괴로운 야간 빈뇨의 진단과 치료’
 - － 강사 : 인하대병원 비뇨기와 박원희 교수
 - － 주최 : 대한배뇨장애 및 요실금학회
- 인하대병원 무료 건강공개강좌
 - － 일시 : 4월 26일(화) 오후 15:00
 - － 장소 : 인하대병원 3층 대강당
 - － 강좌내용 : 성인병과 건강검진

- － 강사 : 인하대병원 소화기내과 신용운 교수
- － 공통 : 참석하시는 분에게 무료 주차권 발급.

문의 _ 인하대병원 교육연구부 (890-2640~2)

암계몽 캠페인 및 공개강좌 열립니다

인천시민들의 암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우리시 주최로 암 계몽 캠페인이 열립니다. 이날 참석한 분께는 당일 발표자료 책자와 기념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 일시 : 4월 8일(금) 14:00~16:30
- 장소 : 서구청 지하 대회의실
- 주최 : 인하대병원, 인천광역시 지역암등록본부
- 강좌내용 및 강사
 - － 유방암의 예방, 진단과 치료 : 인하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이 문희 교수
 - － 전립선암의 예방, 진단과 치료 : 인하대병원 비뇨기와 성도 환 교수
 - － 자궁경부암의 예방, 진단과 치료 : 인하대병원 산부인과 이 우영 교수
 - － 인천지역암등록본부 소개 및 인천의 암발생 현황 보고 : 인하대병원 의료정보과 부유경 과장
- 무료검진 안내 : 유방암 자가진단법 소개, 전립선암 PSA검사 (암 표지인자 검사)

문의 _ 서구 보건소 (560-5047)

인천 홍보대사가 되세요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시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국제행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국제교류 추진을 위해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고 인천의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을 갖고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인천시민 및 외국인들을 명예외교관으로 모집합니다.

- 신청접수기간 : 3월 21일~4월 20일
- 모집부문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독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소정양식), 자격증 또는 공식인증자료 사본 각1부(해당자에 한함)
- 선발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면접일 및 면접대상자 추후 서면 통보 및 공고)
- 시민명예외교관 선발기준
 - － 관련 어학의 교수 및 교사, 학생, 어학원 강사, 일반시민, 외국인 등 통·번역 가능자(단 외국인은 한국어 가능자에 한함)
 - － 민간외교사절로 국제교류에 필요한 소양과 품위를 갖춘 자
 - － 사명감을 갖고 자원봉사 활동에 성실한 자
 - － 상시 봉사활동 가능자 등
- 시민명예외교관 활동분야
 - － 각종 국제행사시 통역 및 안내지원
 - －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
 - － 외국인이 많이 찾는 주요 공공장소인 문학경기장, 인천국제공항 등에 대한 봉사활동 등
- 시민명예외교관 혜택
 - － 해외연수 실시 : 20여명
 - － 통역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보상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 접수 (jks1026@incheon.go.kr)

접수 및 문의 _ 시 국제협력관실(440-2853)

청소년의 달 행사가 열립니다

5월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가 부평구에서 열립니다.

- 일시 : 5월 7일(토) 13:00~17:00
 - － 청소년 사생대회 13:00~17:00
 - － 청소년을 위한 라이브 공연 14:00~16:00
 - － 청소년 가요제 17:00~19:00
 - － 청소년 음악회 19:00~21:00

- 장소 : 부평 신트리 공원
- 참여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구민 (관외 학교 재학생도 출전가능)

- 참가자 신청, 접수
 - － 청소년 사생대회 : 4월 1일~30일
 - － 청소년 가요제 : 4월 1일~23일

문의 _ 부평구 여성청소년팀 (509-6128)

도미노로 세상을 만들어요

세우고 쓰러뜨리고~ 환호하고~~즐거운 도미노 게임~!! 도미노로 세상도 만들고 예술적 감각을 뽐내는 대회가 연수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립니다

- 일시 : 5월 7일(토) 14:00~
- 장소 : 연수구청소년수련관 강당

인천관광기념품을 공모합니다

우리시를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으로 개발 장려하기 위한 제8회 인천관광기념품공모전을 개최합니다.

- 공모부문 : 민·공예품, 공산품, 가공식품(전통민속주, 전통한과류 등) 등 3개 부문
- 공모분야 및 자격
 - ▷ 창작아이디어분야 : 창의적 아이디어 개발상품으로 서의 시제품
 - ▷ 일반상품분야 : 완제품
 - － 우리 인천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대표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계속 생산 가능한 우수한 관광상품
 - － 제품, 포장, 안내문 등이 하나의 세트로 이루어진 제품

- 응모자격 : 사업장 또는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관할 주소지에 있는 사람

- 신청서 교부 : 4월 11일~15일
- 신청서 교부 장소 : 시 관광진흥과(구 한미은행 본점 빌딩 2층), 군·구 및 읍·면·동, 인천시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 새소식)

- 공모접수
 - ▷ 기간 : 5월 2일~4일
 - ▷ 장소 : 해당 군·구의 관광 담당부서
 - ▷ 출품제한 : 1인(업체)당 분야별 5개 이내
 - ▷ 접수방법 : 해당 군·구의 관광 담당부서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 입상작 발표 : 5월 21일 시홈페이지 게재
 - ▷ 제출서류 등

(가) 창작아이디어분야

- 1) 창작아이디어분야 참가신청서 1부
- 2) 상품화계획 1부
- 3) 시제품 및 제품사진(4×6인치) 1매
- 4)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에 한함) 1부

(나) 일반상품분야

- 1) 일반상품분야 참가신청서 1부
- 2) 일반상품분야 제품설명 및 상품화실적 1부
- 3) 완제품 및 제품사진(4×6인치) 1매
- 4)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시상 및 특전 : 창작아이디어 분야, 일반상품 분야 각각 대상 (시장상 상금 4백만원), 금상, 은상, 동상, 장려, 입선 등.

문의 _ 시 관광진흥과 (440-4054)

이 달의 우리고장 국가유공자

전투기 조종사 고(故) 김금성 장군



김금성 장군은 1927년 충북 충주에서 태어나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0월 공군 소위로 임관하였다. 임관 후 제1전투비행단 정찰대에서 L형 연락기로 적정 정찰, 연락, 전단 살포 등의 비행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1951년에는 강릉기지에서 F-51전투기 조종사로 활약하였다.

이후 1952년 승호리 철교 폭파작전과 송림제철소 폭격작전, 1953년 3월 351고지 탈환을 위한 근접항공지원작전 등 한국 공군이 출격한 주요작전에 참가하여 수많은 전공을 세웠다.

특히 전쟁기간 중 전투비행대대장, 작전과장 등을 역임하며 비행단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한국 전투 조종사로서는 두 번째로 많은 193회를 출격하여 작전 하던 중 여덟 번이나 적의 대공포화에 전투기가 피탄되었으나 투철한 책임감과 우수한 조종기량을 발휘하고 위기를 극복하여 모든 출격 조종사의 표상이 되었다.

6·25 전쟁 후에는 공군사관학교 생도대장, 제10전투비행전대장으로 근무하며 공군의 전력증강 및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공군 제10전투비행단장으로 재직 중이던 1961년 9월 불의의 비행사고로 순직하였다.

자료제공 _ 인천보훈지청 보훈과 (430-0125)

- 참가대상 : 초·중학교 선착순 30명 (5명씩 팀별로 접수)
- 시상 : 연수구청장, 사장 및 상품 수여 (협동왕 팀상, 예술왕 팀상 등)
- 접수 : 4월 23일 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인터넷 접수 (다음카페에 접속 후 행사 참여하기란에 작성)

문의 _ 연수구청소녀수련관
(833 - 2010~2, www.cafe.daum.net/2003yism)

여성복지관 이용하세요

우리시 여성복지관 상담실에서는 여성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건전가정 육성을 위해 다양한 종합문제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 종합상담실 운영
 - 상담전화 : 상담실 434-6436~7, 434-0182
 - 상담내용 : 가정·신상·이혼·가정폭력·성폭력·법률·아동·건강문제 (변호사 법률상담월 14:00~16:00), 심리·건강상담(1,3주 토 09:00~13:00))
 - 사이버상담(http://women-center.inpia.net 여성상담 사이버상담)
 - 간이상담실 : 인천지하철 부평역사 내 (522-0154)

시각장애인, 열차 만져보기

인천지하철공사에서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열차 만져보기 체험행사를 갖습니다. 지하철은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지만 시각장애인들의 눈인 손으로 열차의 내부와 외부를 만져볼 기회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이 손으로 열차를 만져보는 행사를 통해 전동차를 이해하고, 전동차 안에서 화재 등 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 일시 : 4월 12일(화)
- 체험장소 : 박촌역
- 체험대상 : 190명 (인천광명원 생활인 및 인천해광학교 학생 120명 / 지도교사 및 자원봉사자 70명)

- 체험활동
 - 전동차 소개 (전동차운행시스템 등)
 - 실습 : 코스별 이동체험
 - ① 전동차 외부 만져보기 (승강장 보도블럭)
 - ② 전동차 내부 만져보기
 - ③ 전동차 화재등 비상시 대피요령(출입문 열기)
 - ④ 비상벨로 기관사와 연락하기
 - ⑤ 생화학 발생시 대처요령
 - ⑥ 운전실 만져보기
 - ⑦ 화재 진화 실습

※화재발생대피요령 점자안내지 배부

문의 _ 인천지하철공사 북부관리사업소 (451-3241)

- 자녀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용 시청각 자료 대여
 - 대상 : 유치원, 초·중·고생, 직장인, 부모, 일반성인 등
 - 시청각자료 : 성폭력·성희롱 예방 비디오 27종
 - 대여방법 : 1인 3편 이내, 대여기간 3일

문의 _ 여성복지관 상담실 (434-6436~7, 434-0182)

만수종합사회복지관 성인 강좌 모집

- 웅달샘 한글학교
 - 과정 : 초급, 중급, 고급반 각 1년 과정
 - 내용 : 한글, 산수, 한문, 생활상식지도(각반 담임제)
 - 시간 : 월, 수, 금 / 10:00~12:00
 - 모집기간 : 수시모집
 - 대상 : 여성분들만
 - 특별활동 : 봄·가을나들이, 체험학습, 특강, 학기별 시상 등
 - 회비 : 3개월 45,000원(분기별 납부)
- 신바람 노인교실
 - 과정 : 민요배우기 / 건강요가배우기 / 가요배우기
 - 내용 : 전통 소리민요와 건강요가를 통한 마사지, 주부가요를 함께 배우는 노인교실
 - 시간 : 월 - 민요배우기 10:00~11:00
수 - 건강요가배우기 10:00~11:00
목 - 가요배우기 11:30~12:30
 - 대상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회비 : 연회비 10,000원(단, 생활보호대상자 무료)
 - 모집기간 : 수시모집

문의 _ 인천YMCA 만수종합사회복지관 교육문화팀
(463-8161~3 www.mansu.wo.to)

터미널시네마 <잠복근무> <래더49> 상영



인천터미널에 위치한 터미널시네마에서는 3월 25일부터 <잠복근무>와 <래더 49>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잠복근무>는 김선아, 공유 주연의 액션 코미디 작품입니다.

와킨 피닉스, 존 트라볼

타 주연의 <래더49>는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한다는 불길과 싸우는 소방관들의 얘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상영 프로그램은 극장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 관람요금 : 일반 6천5백원, 학생 5천5백원

• 주차편의

- 남측·서측의 터미널 직영 주차장 : 50%할인
- 동측·지하의 신세계 주차장 : 백화점 구매영수증 소지자 무료

문의 _ 터미널시네마 (430-7374, 7377)

온고지신

옛것을 익히고 그것으로 새것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모양은 "케익"이며, 그 맛과 내용물은 우리의 전통음식인 "떡"

삼국시대이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우리의 전통음식인 "떡"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떡케익전문기업
떡파는사람들의 "떡케익"

이젠 떡케익으로 기쁨을 함께하세요!

<http://www.dcake.co.kr>





예약주문이나 하루 전 주문하시면
인천, 부천 전 지역 무료배달드리며,
일반떡, 혼수떡, 돌, 백일, 답례떡등
예약하시면 제작하여 무료배달해드립니다.



떡케익대표브랜드 TM

상표출원 | 40-2005-004319

T.1544-1582